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황진수

교회사회복지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s of welfare  
businesses in churches.

2002년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이 유 순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황진수

# 교회사회복지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s of welfare  
businesses in churches.

위 논문을 행정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2년 8월 일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이 유 순

이유순의 행정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정함

2002년 8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 - 목 차 -

<b>제 1 장</b>	<b>서론</b>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b>제 2 장</b>	<b>이론적 배경</b>	3
제 1 절	사회복지에 대한 성경적 의의	
제 2 절	한국교회 사회복지사업의 역사	
제 3 절	교회 사회복지사업의 특징과 기능	
<b>제 3 장</b>	<b>교회 사회복지 실태</b>	30
제 1 절	기독교 빈곤자 복지	
제 2 절	기독교 장애인 복지	
제 3 절	기독교 노인 복지	
제 4 절	기독교 청소년 복지	
제 5 절	기독교 지역사회 복지	
<b>제 4 장</b>	<b>교회사회복지사업의 문제점</b>	56
제 1 절	교회 내 자원 활용의 비효율성	
제 2 절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부족	
제 3 절	목회자의 사회복지 실천의지의 결여	
제 4 절	개별교회 중심주의와 전문성 결여	
<b>제 5 장</b>	<b>교회사회복지사업의 개선방향</b>	60
제 1 절	교회시설자원 및 인적자원의 효율	
제 2 절	통합프로그램의 개발	
제 3 절	목회자 사회복지의식전환과 재정구조 개편	
제 4 절	교회 사회복지사업의 과제	
<b>제 6 장</b>	<b>결론</b>	70
<b>참 고 문 헌</b>		74

- 표 목 차 -

< 표 1 >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	30
< 표 2 > 자활 자원센터의 사업내용	32
< 표 3 > 기독교 장애인 복지 체계	35
< 표 4 > 소망부 프로그램	36
< 표 5 >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추이	39
< 표 6 > 교회 노인 인력은행 서비스 전달체계	40
< 표 7 > 소망부 프로그램 부서별 사업실천 내용	47
< 표 8 > 복지관의주요사업내용	48
< 표 9 > 도림교회 지역사회 개발원의 사업내용	49
< 표 10 > 세화 종합사회 복지관 사업내용	50
< 표 11 > 분야별 기독교 사회봉사 활동 현황	52
< 표 12 > 기독교 사회봉사 활동현황	54
< 표 13 > 방과 후 교실 및 이용 아동현황 (2000년 9월)	60

## 제 1장 서론

### 제 1 절 연구의 목적

20세기 말에는 시대적 흐름을 표현하는 용어들이 자주 사용되었다. 즉 세계화, 개방화, 서구화, 선진 산업화, 고령화, 정보화, 민영화, 지방화, 핵가족화 등이다. 이러한 용어들은 새로운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구시대에 대한 부정과 반발을 의미하기도 한다. 오늘날 한국의 사회문제는 한편으로는 지정학적으로 오랫동안 전래되어 온 문제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과 기존의 전통간의 마찰에서 파생되어지기도 1)한다. 이와 같은 오늘날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간의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이것과 거리가 먼 것 같다. 이제 다시 우리민족의 장점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여기에서는 한국교회도 예외일 수는 없는 것이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고 말씀하셨다. 교회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한다. 지역사회도 교회가 지역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단순히 신앙의 고립적인 아성을 구축한다거나 자아의 피안에 만족하는 이기적인 집단이 아니라, 민족의 고통에 함께하며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처하는 구심점의 역할을 감당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문제에 함께 호흡하는 교회, 민족의 고통에 동참하는 교회, 사회를 이끄는 교회, 그리고 희망이 없는 세대에게 복음의 희망을 던져주어 민족을 구원한 종교로 인식된 것은 그만큼 초기 한국교회가 섬김과 나눔, 그리고 사랑의 바탕위에 복음을 심었기 때문이다. 2)이처럼 초창기 한국교회는 민족과 사회에 크게 기여했었으나, 그 동안 교회 내적인 문제로 인하여 사회에 대한 기여가

---

1) 김기원, 기독교 사회복지론 (서울:대한출판사, 1998).P.163.

2) 최무열, 한국교회와 사회복지 (서울:나눔의 집, 1999). P.47.

미미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사회는 개신교가 들어온 후 끊임없는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이루면서 인구변동과 이동, 산업화와 도시화,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가치관의 혼동, 생활양식의 변모 등을 경험하고 있다. 사회적환경과 여건의 변화는 교회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즉 사회발전의 한 부분으로 교회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교회 3)이제 급변하는 사회에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상실된 교회의 공신력을 회복하고 선교의 터전을 재 건립함으로써, 교회를 사랑하고 또 철저한 섬김의 삶을 사신 그리스도의 숭고한 삶에 기인한 의도적인 나눔의 삶을 실천할 때 비로소 21세기에 민족을 치유하는 교회로 자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초기 한국교회가 사회복지사업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좀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복지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

3) 교회성장 연구소의 '한국의 이백대 교회(1998),' 와 한국목회 정보통신의 '한국에 성장하는 100대교회 탐방보고서(2000)' 자료를 참고하여 한국교회 중에서 영향력이 큰 교회를 성장하였다.

## 제 2 장 이론적 배경

### 제 1 절 사회복지에 대한 성경적 의의

#### 1. 사회복지의 개념

인간의 생활 특히 현대 산업사회의 모든 국민들의 생활과 관련되는 사회복지라는 용어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그렇지만 사회복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은 국가와 학자들에 따라 심지어는 각 개인에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어떠한 합의된 정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사회변동에 따르는 변화하는 견해 때문일 수도 있다.

사회복지의 개념화를 위한 노력은 많은 학자들에 계속해서 시도되고 있고, 사회복지 분야 역시 개념의 도움을 받아야만 현상을 재구성하고 분석하는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 1) 어원적 개념

먼저 어원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사회복지”는 ‘사회(social)’라고 하는 개념과 ‘복지(welfare)’라는 개념의 합성어이다. ‘welfare’는 ‘we’과 ‘fare’의 복합명사로서 ‘평안히 잘 지내는 상태’를 의미한다. 여기서 ‘social’이란 형용사를 붙이면 ‘사회적으로 행복한 생활상태’를 뜻한다. 웹스터 사전에 의하면 ‘복지’는 쾌적한 상태, 안녕과 관련된 상태, 조건 특히 건강, 행복, 번영과 같은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 즉 행복의 전제조건이 되는 일상생활의 상황, 말하자면 인간이 생활하는 삶의 형태를 의미하고, 안녕에 가까운 건이라 할 수 있다.<sup>4)</sup>

이러한 어의의 배후에는 인간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의 가치적 존재인 한, 행복을 누리며 충실한 삶을 살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이념이며 생활목표가 된다는 사상이 깔려 있다. 이와 같은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신체적·지적·정신적·감정적 발달의 기회를 부여함이 필요하며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이다. <sup>5)</sup>요약하면 ‘복지

4) 김만두. 한혜경, 현대 사회복지론 (서울:홍익제,1997).P.19.

5) Parin Vakharia, Encyclopedia of Social Work(NASW,1965), P.845.

(welfare)' 는 인간생활의 이상 상태를 의미하는 개념인 동시에 그 이상 상태를 지향하는 실천 활동까지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 2) 한정적 개념

오늘날 사회복지사업이라 하면 이 한정적 관점에서 사회복지를 일컫는다고 본다. 사회복지의 협의의 파악 방법은 사회복지의 대상을 보다 한정된 '사회적 약자' 와 '사회적 낙오자' 에 두고 그 구제·보호·예방·회복 원조를 행하는 시책과 방법 체계로서 이해한다. 대상을 의존 상태에 구하는 견해도의 맥락에서 사고되는 견해라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본인 스스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 사회적 약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적 노력의 총화라고 보는 6)입장이다. 이러한 경우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업은 개인들의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할 수 없거나 자체내부의 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문제해결 할 자원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수반케 되는 이것은 사회복지의 보충적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 3) 광의적 개념

최근의 사회복지의 사회발전의 과정 속에서 광의나 확대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즉 광의의 사회복지의 사회성원 일반을 대상으로 하여 그 생활의 각 측면에 나타나는 비복지(diswelfare)를 다루거나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위켄덴(Elizabeth Wickenden)은 사회복지의 “국민의 복리와 사회질서를 기능유지를 위한 기초로서 기본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공급을 강화하거나 보장하는 법, 프로그램 급부 및 서비스 등의 체계이다” 라고 정의하였다.7)

또한, 윌렌스키(Wilensky)와 레복스(Rescher) 8)복지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복지하는 것은 다차원적인 것이므로 한 사람의 인간의 복지를 고려할 경우

6) 이계탁 보직행정학 강의9서울:나남출판, 1997). P.23.

7) Elizabeth of Health, "Social Welfare in a Changing World", U.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D.C, 1965).p.11.

8) 장종녀, "한국 기독교회의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p.7.

에도 거기에는 복합적인 구성요소가 포함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신체적인 면에서의 복지, 물리적인 복지(풍요, 번영, 부), 정신적·심리적인 복지(정신적 인정위생)이다. 9)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의 복지를 확보하기 위한 제반시책의 방법은 여러 측면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는 공공일반정책(공중위생과 의료), 사회정책(사회보험과 고용정책 등), 사회사업(협회의 사회복지=공사의 사회사업)을 포괄적으로 표시하는 개념으로 이해한다. 이와 같은 이해는 광의의 사회보장과 동의어로 이해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복지의 개념을 논함에 있어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 견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시대와 국가의 실정에 따라 그 포괄하는 범위는 매우 유동적이고 신축성 있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광의의 사회복지란 인류사회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고 그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박애정신 인도주의 공통적인 복지의 내용으로는 살기 좋은 사회(Well-being social)라든가, 풍요한 사회(abundance society)라든가, 혹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욕구가 충족된 상태 등 이상사회의 규범 등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향이며 이 같은 경향을 입증하는 것으로 로마니신(John M, Romanyschin)은 1971년에 간행된 그의 저서 Society Welfare, Charity to Justice에서 사회복지 개념이

- 첫째, 보완적 개념에서 제도적 개념으로
- 둘째, 자선에서 시민권으로
- 셋째, 특수한 서비스에서 보편적 서비스로
- 넷째, 최저조건에서 최적조건으로
- 다섯째, 개인적 개혁에서 사회적 개혁으로
- 여섯째, 자발성에서 공공성으로

일곱째, 빈민복지에서 복지사회로의 사회변화에 따라 사회복지의 개념도 변화되고 있다는,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의 이점이 점점 광의내지 최광의의 경향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0)

이상과 같은 개념을 지닌 사회복지의 성경적 의의는 크게 구약성서에 나타난 성경적 의의와 신약성서에 나타난 성경적 의의로 구분해 정리할 수 있다.

---

9) N.Resecher, Welfare(University of Pittsnur press, 1970), p.4.

10) 이계탁, 전개서, p.25-26.

## 2. 구약성서에 나타난 사회복지

사회복지라 함은 모든 사람의 아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공통체적 노력이자 가치체계를 말한다.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인간의 존엄성, 사랑을 통한 행복권 보장, 봉사를 통한 공동체 건설, 사회 연대 등과 같은 기본적인 가치는 구약성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1)

### 1) 창세기에서의 사회복지 사상

창세기에서의 바라본 기독교사회복지의 의미는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 (imagodei)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을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던 그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에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12) 최초로 피조된 인간 속에는 악이 없으며 죄가 없고 의로우며 하나님 자신의 존엄성과 유사한 존엄성을 간직하고 있었으며 죽음이 없고 선악과를 제외한 지상의 동식물에 지배권을 가지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으로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불순종한 인간은 타락하고 죄악을 범하게 되고 인간은 아름다움과 존

---

11) 김기원, 전계서, p.58.

12) 창세기 1장 27-31절

귀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게 만들어 버렸으며 고통스런 재앙을 초래하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13)

따라서 인간은 이 모든 죄악을 회개하면서, 주어진 동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인간의 선한 모습을 다시금 되찾고, 천하고 고통스러운 인간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엄한 인간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이러한 노력을 제도적으로 행 하려는 기독교인들의 실천적 의지의 표현이고 가치이자 제도를 말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려는 공동체의 노력은 사회복지의 기본적 가치의 하나로써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 2) 출애굽기에서의 사회복지 사상

하나님의 언약서인 출애굽기에 나타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사회복지의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 등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출애굽기에서는 사회복지의 구체적인 객체와 실행방법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다. 14)

### (1) 가난한 채무자를 위한 복지

고대사회의 사회문제 가운데 하나는 당시 사회에서 통용되던 높은 이자 즉 고리와 관련된 문제이었다. 당시 이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채무자들은 원금은 물론 제때 이자를 갚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자나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 채무자와 그의 가족을 노예로 취할 수 있었다. 채권자들은 마음대로 고리의 이자를 거둬들였다. 그러나 15)출애굽기에서

---

13) 창세기 6장5-7절

14) 김기원, 전계서, p.60.

15) 이러한 관례는 Eshnunna법전이 제정된 후에는 제한을 받다가 Hamurabi법전이 생기고 난 뒤에는 이자는 원금의 20%로 제한되고, 곡식의 경우 33%로 제한하였다.

는 채무자들을 착취하지 말고 보살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타나 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채주같이 하지 말며 변리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 뿐이라 이는 그 살의 옷인 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16)

또한 하나님은 지나친 담보 요구를 하지 말라고 하셨다. 일교차가 심한 동방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 기온이 떨어진 저녁에 커다란 천 조각으로 되어진 옷옷이 몸을 보호하는 이불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옷까지 전당 잡는 것을 금지하였다(에스겔 18장7-8절;12-13절).

## (2) 이방나그네를 위한 복지

이방나그네(sojourner, gel)란 어떤 나라에서 다소 제한된 시민권을 누리면서 반영구적으로 거주하는 또는 시민권을 갖지 못한 외국인 거주자를 말한다. 이들은 일시적으로 잠시 머무는 외국인과는 대조적으로 다른 민족 사이에서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이다. 이방나그네는 사회경제적으로 마련되었던 법령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사유재산도 없고 보호받을 후견인도 없었으며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생활하였다. 이스라엘은 과거 애굽에서 그들이 받았던 압제(壓制)와 학대(虐待)하지 말고 안식일에는 휴식(休息)하게 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었음이니라.” 17)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정경을 아느니라.” 18) “너는 육일 동안에 네 일을 하고 제칠일에는 쉬

---

16) 출애굽기 22장 25-27절

17) 출애굽기 22장 21절

18) 출애굽기 22장 9절

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19) 돌리리라” 출애굽기 이외에도 이방나그네의 보호(保護)를 규정하고 있다(레위기 20장 33-34절; 19장 9-10절)

### (3) 가난한 자를 위한 복지

출애굽기는 가난한 자들을 착취(搾取)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동시에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을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근거에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시고, 가난한 자들의 보호자(保護者)이시며,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믿음이 깔려 있다. 20)

“너는 육년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고 그 소산을 거두고 제 칠년에는 갈지 말고 묵여 두어서 네 백성이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21) “네가 만일 나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채주같이 하지 말며 변리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의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慈悲)한 자임이니라.” 22) “너는 23) 가난한 자의 송사(訟事)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이처럼 안식년에 휴한(休閑)의 규정을 두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보살피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변리를 받지 말고 전당잡은 옷을 돌려주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난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판관이 가난한 者를 고의(故意)로 부당(不當)하게 재판(裁判)하는 것을 금(禁)하고 있다.

### (4) 과부(寡婦)와 고아(孤兒)를 위한 복지

과부와 고아가 비록 환경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존귀한 사람이다. 이들은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

19) 출애굽기 23장 12절

20) Leslie J.Hoppe, Being Poor:A Bivlical Study, 성서에 나타난 가나,나요섭역(서울:나눔사,19920.P.17.

21) 출애굽기23장 10-11절

22) 출애굽기 22장 25-27절

23) 출애굽기 23장 6절

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생활 가운데 억울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은 이들 과부와 고아의 보호자이심을 말씀하고 계신다. 이들을 해롭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sup>24)</sup>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복수를 행하는 잔혹한 동형 복수법(동형 복수법, Talion의 법) 보다 더 무서운 징벌로서 복수를 행하신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나의 노가 맹렬하므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sup>25)</sup>

### (5) 노예(奴隸)를 위한 복지

노예에는 전쟁포로노예, 수입된 외국인 노예, 매매(賣買)된 미성년자 노예, 자원매매(自願賣買)된 노예,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으로 인한 노예 등이 있다. 자원매매로 이루어진 노예는 굶주림이나 빚에 쫓겨난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마저 팔아 스스로 노예가 된 경우이다. 메소포타미아 법에는 채권자가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채무자를 사로잡아 강제노역을 시킬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비록 자유인이지만 채권자의 노예가 되는 일이 이스라엘 안에 허용되었다.<sup>26)</sup>

그러나 성경은 이들 이스라엘 동족이 히브리 노예들이 학대를 금하고, 7년 뒤에는 해방시켜 주고, 보낼 때에는 빈손으로 보내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다(출애굽기 21장 2-4절)

### 3) 레위기의 사회복지 사상

출애굽기에 이어 레위기에도 사회복지 사상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레위기 19장에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거룩한 삶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거룩이란 추수 때에 가난한 사람에게 자애로움을 나타내는 것, 일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재판과정에서의 공정성, 다른 사람에 대한 사려 깊은 행동, 이주자

24) 박요일 출애굽기 강해 (서울:크리스찬서적, 1987). p.101

이 법은 역사적으로 원시 비개인의 사회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사회규범이며 가장 노골적인 오보형으로서 보편적으로 타인의 손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것이다

25) 출애굽기 23장 6절

26) 김기원, 전계서, p.64.

에 대한 평등, 정직한 상행위와 모든 사회적 사건 등에 대한 철저한 실천적 행위를 내포하고 있다.<sup>27)</sup>

### (1)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

레위기는 출애굽기와 동일하게 극빈자들이 생존을 위해 부자의 자발적 배려를 명령하고 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여호와니라.”<sup>28)</sup> “네 동족이 빈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거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익을 취하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며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익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sup>29)</sup>

### (2) 안식년

안식년에 자연적으로 성장하며 열매 맺는 수확물은 그대로 두어 가난한 자나 동물의 식물이 되게 함으로써 모든 피조물이 안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제 칠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곡물이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의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 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과, 네 육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 지니라.”<sup>30)</sup>

### (3) 희년

31) 희년은 본래의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는 토지회복 제도이다. 희년이 선포

---

27) Christopher Wright, Living as the Peoper of God(England:Inter Varsity Press, 1983), p.297

28) 레위기 19장 9-10절

29) 레위기 25장 35-37절

30) 레위기 25장 4-7절

31) 7년마다 한 번씩 오는 안식년 일곱 번 거듭된 다음해, 즉 50년째의 해이다.

되면 토지나 가옥을 팔았던 농민들은 그 기본재산을 다시 돌려받게 되며, 웅색하게 되어 몸을 팔아 노예가 되었던 사람도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었다.

이 희년사상은 안식년과 더불어 빈부격차를 최소한으로 줄이자는 데 의도가 있었으며 종족들에게 자유를 줌으로써 세습적인 노예제도를 방지하게 하였다. “칠월 십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 오십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표하라 이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가업으로 돌아가며 그 가족들에게로 돌아가라 32)네이기 25장9절~10절

#### 4) 신명기에서의 사회복지 사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도록 강력하게 경고하셨다(신 8 : 11-17).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애굽의 종 되었음을 ‘기억하라’고 요구하신다. 이것은 곧,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압제자의 자리에서 군림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망각치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는 신명기 법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희년에서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희년은 하나님의 의지를 법제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룩해 놓으신 일을 망각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며 경고였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 - 즉 출애굽 사건을 잊어버리는 것은 곧 이 법을 따르는데 실패한 것이었으며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치와 동기를 동시에 잃게 되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희년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이 결코 그 때의 억압과 설움을 기억하여 억눌린 자들에 대한 보호를 잊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이다. 33)

#### (1) 사회 복지를 위한 십일조

신명기 14장에서 처음으로 십일조에 관하여 거론하면서 십일조가 복지사상의 근본임을 밝히고 있다. 십일조는 마땅히 바쳐져야 하는 것, 십일조는 마땅히 나누어져야 하는 것, 십일조를 저축하여 객과 고아와 과부의 생계의 수단으로 삼을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32)

33) 최무열, 전계서, p.21.

신명기에서는 십일조의 중요한 사용도 가운데 하나는 사회복지적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십일조는 레위인, 객, 고아, 과부들과 같이 가난하고 소외된 가운데 살아가는 이웃들을 돕는데 사용하는 것이 그 중심인 것이다. 34)

“매 삼년 끝에 그 해 소산의 십분 일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가 축복을 주시리라.” 35)

“제 삼년 곧 십일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십일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네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36)

## (2) 여호와의 면제년

신명기에는 여호와의 면제년에 관한 규례가 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한 면제이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입은 은혜와 보살피심을 기억하여 감사의 보답으로 그 이웃의 채무를 면제해 주는 해라는 뜻이다. 신명기는 부자들이 자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빌려주었던 것을 받지 않음으로써 부자들이 자기희생을 통해 빈곤문제의 일부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종으로 삼을 수 있었기 때문에 채권자가 칠 년마다 이스라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지고 있는 빚을 자진해서 면제해 주도록 규정함으로써 채무로 인한 노예계층이 이스라엘에서 생겨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매 칠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꾸어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꾸인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정녕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자가 없으리라.” 37)

## (3)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안식년

안식년은 히브리 달력의 7년 주기의 마지막 해이다. 이 해는 땅을 쉬게 하

---

34) 김기원 전계서 p.69.

35) 신명기 14장 28-29절

36) 신명기 26장 12절

37) 신명기 15장 1-4절

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 주고, 채무를 면제해 줄 뿐 아니라,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켜주고, 또한 이들이 터 잡고 살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었다. 안식년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해방되도록 규정하여 놓은 한 해를 뜻한다.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유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 칠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를 가계 하지 말고 너의 무리 중에서도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38)

이러한 구약에 나타난 사회복지 사상은 신약의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데 그 의의를 더하고 있다.

### 3. 신약성서에 나타난 사회복지

#### 1) 예수 그리스도의 사회복지 사상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사역 대부분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중하셨다. 대부분은 갈릴리에서 보냈으며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이방인, 환자를 사역의 중심에 두셨다. 갈릴리 지방은 옛날부터 외국군에게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고, 앗수리아 문물에 이어 쏟아져 들어와 갈릴리인 들은 혼혈종이 많았다. 또한 수리아 일변도의 정책을 따르다 보니 정책 뿐 아니라 앗수리아의 우상들을 입수하게 되었고 글자 그대로 “어두움의 백성” 이 되고 말았다.<sup>38)</sup>

예수님은 약한 여자, 세리, 환자, 문둥병자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결코 예루살렘의 권세자들을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배려하지는 않으셨다. 도리어 갈릴리의 경제 문화적으로 약한 무리들을 위해 일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사역의 내용과 그가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4장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40)

38) 신명기 15장 12-14절

39) 최무열, 전개서, p.35.

40) 누가복음 4장 18-19절

로날드 사이드(Ronald Sider)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참으로 사회의 약자에게 집중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드러움과 날카로움이 공존하신 분이시다.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벗은 자들에게 입을 옷을 제공하지 않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찾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날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고 엄히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의 뜻대로 삶을 실천한 사람들에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고 부드럽게 말씀하실 것이다.<sup>41)</sup>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들에게 가난하고 필요를 요청하는 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지극한 관심을 본받기를 원하셨다. 이는 그의 가르침 전체에서 가난한 자와 사회적으로 버려진 자들에 대해 너무도 많이 언급하셨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마태복음 4장 23-25절을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살펴보면,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과 천국의 복음을 선포한 것, 그리고 병을 고치신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 중의 천국복음의 선포는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마가복음 1장 15절 ;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리스도는 또한 이 세상의 샬롬(평화, 화평)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이사야 9장 6절 ; 미가 5장 4절 ; 스가랴 9장 9절 ; 누가복음 2 : 14).

이 메시아 왕국은 계약법에서 구현되는 정의와 예수의 공동체에서 구현되는 코이노니아(koinonia)<sup>42)</sup>의 실재를 통전하는 개념이다. 즉 메시아 왕국의 평화는 사회의 불의로 인한 불일치, 갈등 등을 극복하여 완전성을 이루는 것이다. 단순히 전쟁, 분열, 갈등이 없는 상태가 평화가 아니라, 정의와 코이노니아가 넘쳐서 완전함을 이루는 역동적인 샬롬의 실재이다.<sup>43)</sup>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샬롬(shalom)의 본래적 개념은 집합성을 의미한

---

41) Ronald J. Sider, Rich Christians in an Age of Hunger(London : Hodder and Stoughton,1990), p.70

42) 그리스어로 친교, 교제, 합동, 참여, 구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43) 최무열, 전제서, p.35.

다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개인과 가족, 주민과 주민, 이웃과 이웃끼리 살림이 있을 때 그 사회는 공생의 공동체(성스러운 세상)가 형성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기독교사회복지가 교회의 목회전략으로 코이노니아를 전개해 나갈 때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오늘의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sup>44)</sup>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면서,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누가복음 4장 18절-19절). 세례 요한이 예수께 “오실분이 당신이냐” 라고 물을 때, 그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앓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마태복음 11장 4-5절)고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뿐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의 봉사의 사역을 따르도록 요청받는다. 따라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은 현재의 불의한 구조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한 정의의 구현을 포함한다.

## 2) 초대교회와 나눔 공동체<sup>45)</sup>

예수 그리스도의 코이노니아는 곧 초대교회의 부활공동체의 오순절 성도의 교제로 확산되었다. 기독교의 공동체는 모든 것을 나누는 공동체, 즉 참여가 극대화되는 공동체의 구조를 가지며 이것이 예수의 형태로 그의 공동체에서 형성되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사도들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은 믿는 무리들이 서로 연대하고 친교하며 자기희생과 너그러움을 통해서 빈민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사도들의 말씀에 더욱 정진하게 하기 위해 구제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요원을 선출했는데 이로 인해 집사제도가 탄생하게 된다.

“믿는 사람이 다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sup>46)</sup>

44) 박효문 편, 기독교 사회복지론 (서울:제일법규, 2000), p.44.

45)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를 말한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 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 이니라.” 47)

이처럼 초대교회는 지역사회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와 자매로 인식하였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이러한 사역은 그리스도 사역과 결코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요소들이다.

### 3) 바울의 코이노니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초대교회에서 강조된 요보호 자들에 대한 관심은 바울에 의하여 더욱 분명하게 강조된다. 그는 헌금의 사용을 구체화하는 실제적인 동의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눈다는 의미에서의 바울의 훈계는 성서의 여러 속에 나타나고 있다.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48)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49)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50)

로마에서는 사회복지를 행함에 있어 실제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직분을 주시고, 서로가 자기에 맡겨진 직분에 충실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서로 하나가 되어 이루시길 원

---

46) 사도행전 2장 44-47절

47) 사도행전 4장 32-35절

48) 고린도전서 16장 2절

49) 고린도전서 12장 18-19절

50) 고린도전서 12장 25-26절

하고 계신다. 믿음의 형제들인 동료들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길 서로 먼저하며 주의 뜻을 행하는 것 이므로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히 행해야 한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 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홀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51) 빌립보서에서는 사회복지는 겸손한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공홀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5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성경적 의의를 지닌 사회복지가 한국교회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실현되어져 왔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51) 로마서 12장 7-13절

52) 로마서 12장 7-13절

## 제 2 절 한국교회 사회복지사업의 역사

### 1. 개화기의 복지사업

한국 기독교의 역사는 선교사들의 활동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선교사들의 초기 활동은 모두 중국 선교 단체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선교를 시작하였을 때 한국은 정치적인 면이나 문화적인 면에서 중국문화의 종속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중국이 한국에 대하여 지속적인 영향을 행사할 당시 조선왕조는 양반과 천민의 갈등으로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었다.

당시 불평등한 사회에 개신교는 19세기 말경 한국 땅에 상륙하였다. 최초의 선교사들이 1885년에 이 땅에 상륙하기 이전 서상륜은 이미 열성적으로 복음을 전하였고 그의 고향인 소래에 교회를 세웠다. 이 기간 사회적으로 천민이나 일반인들이 사회 정의에 대해 강력한 개혁을 시도하였던 것은 새로운 종교를 통하여 세계의 상황을 직시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선이 자아인식에 눈을 뜨게 된 동기로 이기백은 도매상의 발달과 자가 농가의 등장, 양반제도의 불영속성, 일발적인 민중의 봉기, 그리고 개화에 대한 강력한 기대<sup>53)</sup>에 두었다.

제일 먼저 알렌 선교사가 1884년에 의사의 자격으로 내한하였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는 알렌보다 1년 후 한국에 도착한 셈이다. 이 선교사들은 조선정부가 그들을 선교사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로서의 지위보다는 의사와 교육가의 자격으로 활동하였다. 그들이 교사와 의사로 활동하는 한 조선정부는 선교사라는 사실을 묵인하였고 조선 정부와 백성들은 새로운 지식과 문화를 소개해주는 의사와 교육가로 대우해 주었다.

이러한 역사적 정황에 따라 조선에는 학교와 병원이 우선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국민복지는 물론 국민정신의 향상을 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두 기관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양상을 갖게 되는데, 즉 병원을 통해서는 주로 소외계층, 하류층 사람들이, 학교에서는 정치지향적인 양반층의 청년들을 접할 수 있었다. <sup>54)</sup>

1884년 신앙의 자유가 묵인되자 교회는 곧 복지사업의 새로운 형태인 유

53) 이기백, 한국사신로(서울:조각,1982), p.245-274

54) 이덕주, 태화기독교 사회복지관의 역사(서울: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1993),p.28.

아원과 양로원, 맹인학교를 설립 운영하게 되었고, 또 구제사업과 나환자 돌보기 등을 실시하게 되었다.

1892년 성공회 신부 랜디스(Landies)가 고아원 학교를, 1898년에 여선교사 홀(Hall)은 맹인을 위한 맹인학교를, 1909년에는 선교사들에 의해 나환자 정착사업이 시작되었다. 한국 최초의 맹인사업은 1894년 셔우드(R. Sherwood) 선교사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1897년 점자를 창안 보급, 1903년 맹인학교를 설립하고 1909년에는 농아부를 설치하였다.

오늘날까지 사회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한국 YMCA운동은 1899년부터 언더우드 목사와 아펜젤러 목사의 노력으로 설립되어 각종 토론회, 카운슬링, 외국어 교육, 기술교육(목공, 철공, 인쇄, 제혁 등) 각종 경기보급, 레크리에이션 지도배급을 활발히 전개하였다.<sup>55)</sup>

개화기의 기독교 사회사업활동을 휘셔(Fisher)의 견해로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병자, 부상자에 대한 과학적 치료
- ② 빈민, 고아등 사회사업에 대한 지적이고 조직적인 보호책
- ③ 미신과 악령 숭배의 감소
- ④ 어린이에 대한 존중
- ⑤ 조혼등 결혼관습 개선
- ⑥ 여성에 대한 태도와 처우개선
- ⑦ 민주주의 사상, 한국인 자신에 대한 자기존중과 재인식, 민족의식 고취
- ⑧ 민주적 인간관계와 계층 차별의 타파(개인의 존엄성)
- ⑨ 사회복지에 대한 봉사와 새로운 관심
- ⑩ 알콜, 마약, 유독성 약중에 대한 계몽
- ⑪ 한글 보급화의 일반화, 문맹퇴치 운동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사회는 개화기에 있어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전반에 걸쳐 깊이 연관되어 활동하였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

55) 김덕준, “기독교와 사회복지 사업”, 사회복지, 통권75호, 한국복지협의회 1984, p.36.

## 2. 일제시대의 복지사업

1904년까지 한국교회는 46개의 남녀 초등학교를 세웠고, 계속하여 중·고등학교를 세웠으며, 교사를 훈련하는 학교와 한국 교회의 첫 목회자를 배출한 신학교를 건립하였다. 1903-1904년에는 5,400명이 넘는 교인들이 그들이 회중을 교육하기 위하여 교사양성학교에 등록하여 교육을 받았으며, 1905년까지 기독교는 교육에 있어서 전통적인 유교교육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120개의 신식학교를 세워 운영하였다. 56)

이러한 교육의 열풍은 단순히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만은 아니었다. 기독교로 개종한 한국인들도 학교와 병원을 세웠고, 교육과 새로운 기술로 조국에 희망을 불어넣었다. 1905년 을미조약이 체결한 후 기독교 항일운동의 근거지가 되었고 일제는 신사참배와 기독교 교육과 문화를 말살하려는 정책을 펴 나갔다.

1919년 3·1운동 후에는 모든 교회의 집회 금지뿐만 아니라 폐쇄령을 내렸고 1942년에는 모든 외국인 선교사를 추방시켰다. 초기 교회 때부터 활발하게 시작되었던 기독교 계통의 학교들의 성장과 신교육을 통한 사회의 복지사업이 한창 일 때인 1910년 일제는 기독교 사립학교에 대해 폐교를 강요하여 교육사업은 위축되었으나 나름대로의 성과는 유지시켜 나갔다. 의료 계몽사업과 순회 진료, 무료진료 사업은 1922년 당시 기독교 병원수가 26개에 총진료 환자수가 244,000명에 달하고 있었다. 57) 1909년 윌슨(R. M. Wilson)과 포자이드(H. W. Forsythe)에 의하여 복지사업이 광주에서 시작되었고 1925년에는 여수로 옮겨 애양원으로 확정되었다. 1918년에는 문둥병 위원회를 조직하여 소록도에 오늘의 국립 나병원이 설립되었다. 58) 1928년에 홀 여사에 의하여 해주에 개설된 구세 요양원은 마산 요양원과 함께 많은 결핵 환자를 구했으며 크리스마스 썰(Christmas Seal)을 판매함으로써 결핵 박멸운동에 기독교가 앞장서게 되었다. 1919년 선교사 부인 웰즈(Wells)에 의해 이혼녀, 과부, 불우여성을 위한 부녀 복지사업의 시작이 되었으며, 1912년에는 감리교 태화관이 사회복지관으로 설립되었으며, 1936년에는 구세군에 의해 부산역과

56) 박정신 “한국 개신교 성장에 대한 역사적 설명 시도”, 기독교사상(1984년 4월호), p.119

57) 장종녀, 전계서 논문, p.37

58) 김양선, 한국 기독교사연구 (서울:기독교문사, 1971), p.160.

부두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사회봉사, 사회사업, 사회선교, 농촌운동 등을 광범위하게 전개해나갔다. 59) 이처럼 일제시대의 한국기독교의 특징은 민족이 처한 사회 상황과 사회의 요구에 밀접하게 반응하는 사회 참여적 교회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면에서 교회는 일본의 통치로 고통을 당하는 민족의 마음과 정신을 위로한 영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다.

### 3. 해방 후의 복지사업

8·15 해방 후에 한국의 사회사업은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전의 사회사업을 근대적 사회사업의 계몽기라고 할 수 있다면 해방 후의 사회사업은 그 발전기라고 할 수 있다. 해방 후 맹인교육과 농아교육의 특수성이 인정되어 대구 동아 맹인학교 창설자 이영식 목사, 구화교육의 개척자 최병운 장로 등의 활동은 주목할 만하다. 그 외에 많은 외국의 선교사와 기독교 기관의 도움으로 맹인 농아 사업은 활발히 진행되었다. 60)

6·25 동란은 민족의 큰 아픔이었다. 교회 역시 많은 지도자들을 잃고, 교회들이 파괴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교회는 고난당하는 민족의 위급한 현실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다. 그 참혹한 고통 속에서 한국교회는 피난처를 제공하였다. 수백 개의 구호기관들이 요보호 자들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한국 동난중 한국 교회는 엄청난 구호품을 서방으로부터 입수하고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기관의 역할을 감당하였다. 61)

한국 교회가 이 당시 실시한 사회사업은 고아 구제사업, 전후난민, 전재민, 수재민, 전상자, 미망인, 전쟁고아,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수용보호가 주를 이루었다. 고아원, 모자원, 재활프로그램, 결핵 프로젝트와 나환자 사업 등이 그 중 대표적인 사업이었다. 오늘날 사회복지 시설의 90퍼센트 이상이 기독교이라는 점만 보아도 그 공헌도를 알 수 있다. 해방 후는 사회사업이 대부분 민간 사회사업이며 기독교 계통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

59) 한국기독교사연국회 편, 한국기독교의 역사 (서울:기독교문사, 1991), p.240-241

60) 강혜영, “한국교회의 사회봉사사업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서울여자대학교 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p.9

61) 최무열, 전계서, p.103.

#### 4. 현대의 복지사업

박정희 정권이 1962년부터 4차에 걸쳐 실시한 경제개발계획이 1970년대의 한국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 급진적 경제 및 사회 변화는 경제적으로는 산업화가, 사회적으로는 심각한 도시화 현상이, 문화면에서는 대중화 경향이 나타났다. 산업사회가 도래함으로 근로자의 후생복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산업복지라는 이름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1970년도 이후 산업선교를 통해서 노동문제에 개입하게 되었고 1971년 도시산업선교회를 통해서 산업체내의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하여 노동실무자 훈련, 노동운동 지도자교육 노동자 의식화 교육, 노동자 조직 활동, 노조 지도자육성, 노동자 복지활동의 지원 등으로 나아가게 되었다.<sup>62)</sup> 또한 산업화에 따른 도시빈민 문제 역시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초기 도시빈민선교 운동은 1970년대 초반부터 일어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억눌리고 소외된 도시빈민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부터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사업이 개인이나 사회단체로 이양되는 등 초기 한국교회가 감당했던 사회복지의 중추적 역할이 감소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는 한국교회 내부의 보수와 진보의 극단적인 분열이 큰 요인으로 대외적인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1970년대 들어서 국가경제의 향상에 따라 교회역시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여 겉음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재원과 자원을 지닌 한국교회가 사랑의 실천인 사회복지에 무관심하다는 사회적 비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

62) 장종녀, 전계서 논문, p.40. 이러한 활동은 진보적 교단 위주로 행하였다.

### 제 3 절 교회의 사회복지사업의 특징과 기능

#### 1. 교회사회복지사업의 특징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근본적인 인간 공동체의 모델로 설명될 수 있다. 윌라드(R. Willard)는 교회에 대한 전통적인 성경적 이미지를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성도들의 어머니, 예루살렘, 시온, 양, 우리, 타작마당, 포도원, 언약궤로 이해하고 있다.<sup>63)</sup> 이처럼 교회에 대한 역사적 이미지는 예수님의 성육신 이후부터 창조의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교회의 기원과 의무, 그리고 기능 살펴봄으로써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접근을 하고자 한다.

교회의 시작은 아담의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직후에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 후 권세를 추종하여 사탄의 영적 후손을 상징하는 뱀과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여자의 후손 사이에서 일어날 일을 예언하셨다(창세기 3 : 15). 그 후 하나님은 인간을 긍휼히 여기사 보호해 주시겠다는 징표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으로 옷을 지어 주셨다.(창세기 3 : 21).

교회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최초로 그의 사랑을 나타내신 이 두 사건을 통하여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 하나님은 인간에게 나타내신 사랑의 실현이라고 한다면 인간 공동체에서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기초의 모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교회는 사회와 함께 하나님의 의지를 실행하기 위해 인간 공동체에서 악을 추방하고 선을 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sup>64)</sup>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교회는 선행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 따라서 교회의 사회복지사업은 교회의 기원과 함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타락 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사건으로부터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찾아볼 수 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그분의

63) 한귀근, “한국개신교 사회복지사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대구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p.50

64) 김장대, 기독교사회복지학(서울:도시출판 진흥, 1998), p.27-28.

최초의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인간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 그 자체이고, 교회의 의무는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 자체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악 된 인간을 위해 죽게 하심에서 그 극치를 이루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완성되었다.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예수님이 직접 실행하심으로써 교회의 모델이 되셨다(요한복음 13 : 5; 마태복음 5 : 44).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행위가 교회의 사회복지의 중요한 수단이다. 즉 기독교 복지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객체는 인간의 선행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의 복지의 개념에서 기능을 살펴보면 교회 내적인 영성 훈련 기능과 교회 외적인 사회복지 기능이 있다. 이러한 교회의 기능을 기독교 복지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교회라는 의미 속에는 항상 복지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교회의 기원이 기독교 복지의 시작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교회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일반사회복지기관의 복지사업과 비교해서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65)

첫째, 교회의 사회복지사업은 자원봉사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교회는 교회의 복지사업에 호의적일 수도 있고 동시에 저항적일 수도 있는 소규모 자원봉사집단 구성원들을 활용하여 복지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교회의 사회사업은 일반적으로 의료사회사업이나 학교사회사업이 병원이나 학교에서 부수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이듯이, 주된 조직인 교회의 이차적인 사업으로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셋째, 평신도는 교회사회사업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교인들은 그들의 봉사가 피봉사자의 개종을 인도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들을 위해 봉사하도록 명령을 받는다.

넷째, 교회는 일반복지기관과 달리 조정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교회는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이 개인이나 가족의 이익을 침해해 서로 갈등을 빚게 되는 경우, 양자의 마찰을 완화해주는 완충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회사회사업은 교회 자체의 독특한 문화환경 가운데서 수행되어

---

65) 김기원, “교회의 사회복지 실태에 대한 인식도는”, 목회와 신학, 도서출판 두란노, 1997년3월호, p.104-105.

진다.

교회사회사업은 교회공동체의 문화적 형태와 용어를 사용하고, 또 그 안에서 운영되어야 하므로 성경, 신학, 그리고 기독교의 가치와 생활양식이 사회복지사업을 실천하는데 그 기초와 자원으로 활용 되어져야 한다.

## 2. 교회사회복지사업의 기능

교회사회복지사업의 기능은 대체로 사회적 기능, 사회선교적 기능, 자원 봉사적 기능 등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교회사회복지사업의 기능은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 현대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얻어야 할지는 사회복지학에서 뿐만 아니라 주변 응용학문의 공통된 고민일 것이다.

종교 사회학적으로 볼 때 종교가 사회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 기능을 사회 통합적(social integration)기능, 사회변형(transformation) 혹은 사회변동(social change)의 기능, 그리고 사회통제(social control)의 기능으로 구분한다.<sup>66)</sup>

교회사회복지사업의 기능 가운데 첫째 이유가 종교는 분화와 갈등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사회 통합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의 본질은 세상 가운데서 사회와 환경에 의해 지배를 받기도 하며, 깊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이다. 교회는 사회와 동떨어지고 사회와 무관한 체제가 아니라 사회 안에 있으면서 유기적인 관계 속에 놓여 있는 집합체이다.

종교의 기능은 4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통합 기능, 갈등 기능, 의제(擬制)기능, 그리고 창조 기능이라 하였다. <sup>67)</sup>

이는 한 사회적 기본적인 목적, 즉 그 사회 구성원의 통합과, 변화를 통하여 갈등의 극복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헌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종교의 통합의 기능은 긍정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때에는 인간 가능

---

66) 이원규, 1996, p.84-86.

67) G.타이센, 조성호 역, 1981, P.8.

성의 확장과 풍요를 의미하고, 부정적인 역할 수행으로는 사회를 강제와 억압으로 몰아넣어 갈등의 기능으로 돌입하게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갈등은 보상적 해결책에 의해 해소될 수도 있으며, 새로운 해결책으로 나아가는 통합 기능으로 사회화하기도 한다.

따라서, 교회는 꾸준히 사회의 갈등 위기를 해소하려는 통합적 기능으로 나아감으로서 사회적 통합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교회가 사회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능으로서는 다음의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68)

- ① 완화적 기능(Alleviative Function)이다. 교회는 사회복지 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덜어주는 기능을 한다.
- ② 치유적 기능(Curative Function)이다. 교회는 사회복지 활동을 통해 빈곤의 원인을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
- ③ 예방적 기능(Preventive Function)이다. 이 기능은 앞으로 닥칠 사고나 고통들을 미리 저축해 예방하는 기능이다.

둘째, 교회사회복지사업은 사회선교적 기능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교회의 역할을 복음 선포(케리그마), 교육(디다케), 친교(코이노니아), 봉사(디아코니아)라고 보고 있다.

정통 선교(mission)개념에서는 선교사들에 의해 해외의 비기독교 지역에 가서 전도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로 이해하여 왔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선교' 개념으로 바뀌어 이는 교회의 선교란 하나님 선교의 도구가 되는 데에 있는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교 활동에 하나님의 도구로서 동참하여 하나님의 뜻이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교회가 사회를 향하여 할 수 있는 일은 선교이다. 선교가 교회의 부분적인 특수한 기능이 아니고 교회가 존재하는 기능 자체이며 교회의 자기표현으로 Emil Brunner는 보고 있다.69) 교회의 사회선교 영역이 가난한 이웃에 대한

---

68) 김기원, 교회사업의 활성화 방안 1999, P.160-161.

사랑, 하나님의 정의의 수립, 하나님의 평화의 수립, 그리고 창조세계에 대한 책임으로 나눌 수 있다. 한편, 교회가 사회복지사업에 나서야 하는 이유는 교회의 본질성 회복, 통전적 선교(wholistic mission), 그리고 통전적 교회성장(wholistic church growth)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교회의 사회복지사업의 실천은 교회 자체를 위해 행하여지는 것으로 오해를 받아왔다. 교회가 사회사업 실천을 하는 이유를 오직 선교 확장과 교회성장을 위한 것으로 잘못 받아들여진 것이 사실이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 사회사업을 실천한다면, 그것은 사회사업의 도구화를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교회의 사회사업의 기능은 교회의 통전적(wholistic)선교를 위함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다.

셋째, 교회사회복지사업의 기능은 자원 봉사적 기능을 수행한다. 자원봉사활동의 동기는 개인의 외적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양하지만, 베버리지(L. Beveridge)보고서 ‘Voluntary Action’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동기를 다음의 네 가지로 소개하고 있다.

- ① 상호부조적 동기(the mutual aid motive),
- ② 박애적 동기(the philanthropic motive),
- ③ 자기성장적 동기(the motive of personal thrift),
- ④ 직업적 동기(the business motive)를 말하고 있다.

코헨(N.E.Cohen)은 「The Citizen Volunteer)에서 사람들이 자원복지 활동원으로 서비스하는 동기로서 강한 종교적 동기·신에 대한 경외·인정과 지위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오늘날 교회가 지니고 있는 자원 가운데는 인적인 것이 가장 크다. 이러한 교회 내에 인적인 자원을 강한 종교적 동기와 합하여 자원봉사활동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대단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교회가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교회의 기능을 감당한다는 성서적 근거는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대한 비유(누가복음 10장 30-37절),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말씀으로 마태복음 16장 26절, 제자의 발을 씻기심으로 사랑과 섬김의 가르침을 주고 있는 요한복음 13장 1절-16절 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자원봉사활동은 기독교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에의 책임 있

---

69) 재정부족 44.5%, 시설부족 14.6%, 전문지식부족 13.3%, 목회자 인식부족 8.8%, 교인호응부족 8.7%, 제직인식부족 5.4%, 번잡한 절차 2%, 기타 1.7%, 주민호응부족 1%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기원, 전개서논문, P.107.

는 응답” 임과 동시에 종교적 존재로서의 고유의 능력을 체득하고 실천하게 하는 사랑의 훈련과정 이라는 것이다. 즉, 기독교에 있어서는 자원봉사정신은 인간을 절대자인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동등한 인간으로서, 인간존중의 정신을 기반으로 한다. 인간은 절대자로부터 받은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사랑에 감사하고 사랑의 의제에의 책임 있는 응답이 바로 자원봉사활동이다.

## 제 3 장 교회사회복지사업의 실태

### 제 1 절. 기독교 빈곤자 복지

#### 1. 사업과 특성

기독교 빈곤자 복지사업은 다양하게 설명되어질 수 있으나 크게 생계 지원사업과 자활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 (1) 생계지원 사업

생계지원 사업은 교회나 성도들이 빈곤자들의 생존을 보호해 주기 위해 그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금전이나 의식주 관련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교회는 각 신도회나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나 지역 주민들을 정기적으로 금전이나 물질로 후원해 주는 후원사업이나 특정인과의 결연사업을 통해 생계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교회의 자원봉사자들이 무의탁 빈민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해 주거나, 일주일에 한두 번 반찬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 또한 교회가 빈곤한 이웃을 돕고는 싶지만 도와줄 대책을 전혀 세울 수 없는 경우 전국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생활보호대상자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나 지역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에게 보호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표1 >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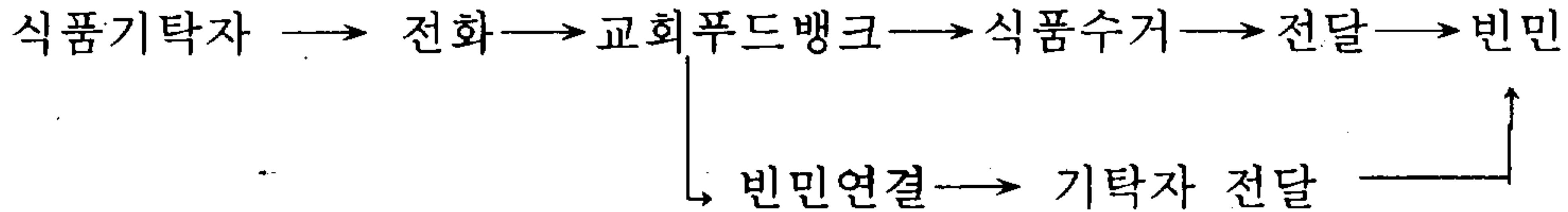
보호종류	거택보호	시설보호	자활보호	합 계	총가구-인구대비
피보호자수	330,745	-	766,020	1,175,187	3.6%
(피보호가구수)	(212,272)	(78,422)	(307,219)	(519,491)	3.3%

자료 : 서울시 사회교육시설 자료집(년도 2000)

1999년 한국에서 실제 보호를 받았던 생활보호대상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2.8% 로 전체 인구 대비 2.5%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교회가 빈민들의 생계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푸드뱅크

크 사업이다. 교회가 농수산물센터, 농장, 슈퍼, 백화점, 제과점, 레스토랑, 뷔페식당, 등에서 팔다 남은 식품이나 음식물을 수거해 굶주리는 빈민들에게 보내 주는 사업이다. 교회 푸드뱅크 사업의 일반적인 전달체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회 푸드뱅크 서비스 전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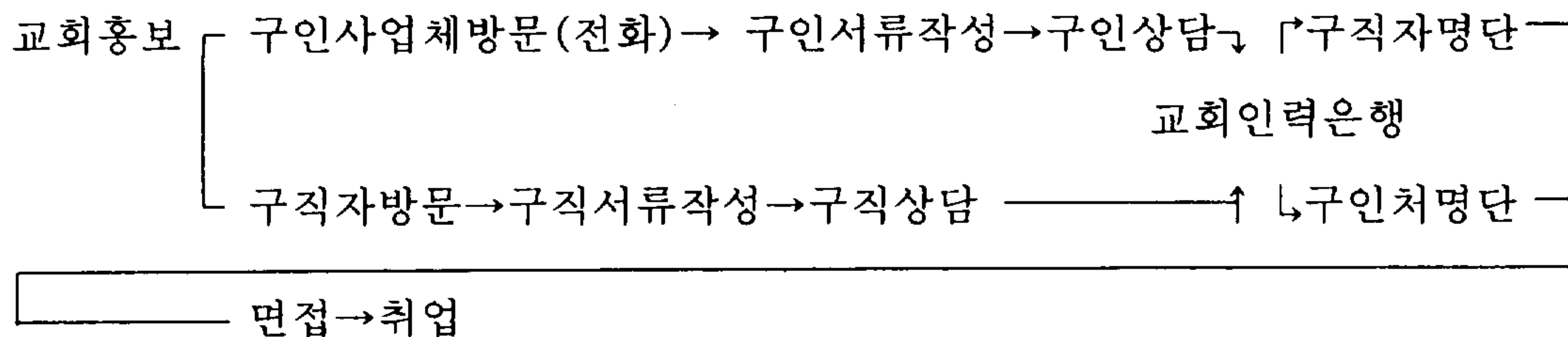


자료 : 한국 자원봉사 능력 개발 연구회(년도 1999)

**(2) 자활지원사업**

빈민구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 구제가 아니라 빈민들이 자신의 힘으로 자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교회는 취업알선을 통해 빈민들의 자활을 도울 수 있다. 교회는 교회 인력은행을 설치해 일할 사람을 찾는 구직정보를 수집하고 양자간을 적절하게 연결해 주는 취업 알선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교회의 취업알선의 한 방법으로 교회는 교회인력은행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교회인력은행의 역할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전개된다.



최근 시도되고 있는 빈곤 퇴치사업 가운데 하나는 자활 공동체를 조성하여 빈민공동체가 스스로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려 노력하는 것이다. 자활공동체의 조성을 위해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도와 줄 자활지원센터가 필요하다.

자활지원센터가 하는 사업내용은 취업정보 제공, 자활교육, 자활을 위한 자금 알선, 협동사업팀 구성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사업을 할 수 있다. 자활지원

센터의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 > 자활지원센터의 사업내용

정보제공	자활교육기능	자금융자 및 알선	협동사업팀 보호 및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정보 및 유망업 정보제공</li> <li>▶ 위업정보창구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활교육, 훈련 및 상담</li> <li>▶ 자영창업교육</li> <li>▶ 경영기술지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금융자</li> <li>▶ 자금알선</li> <li>▶ 자체기금조성</li> <li>▶ 신용협동조합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층 사업팀 연계조직</li> <li>▶ 사업팀 교육</li> <li>▶ 사업팀 사무소</li> </ul>

교회는 이러한 자활지원센터의 운영주체가 될 수 있다.<sup>70)</sup>

## 2) 사 례

강남교회는 국내 선교회 활동을 통해 수서지역을 대상으로 생계곤란 가정에 정기적으로 물질적 후원을 하고 있다.<sup>71)</sup>

동승교회<sup>72)</sup>는 IMF시기부터 지역 주민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기를 위해 ‘노숙자 한가정 돕기’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호산나교회와 <sup>73)</sup>영도중앙교회<sup>74)</sup>는 각각 매주 목요일, 화요일에 무료급식을 통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충남제일교회<sup>75)</sup>는 ‘사랑나눔선교회’를 통해 교회가 위치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의령소망교회<sup>76)</sup>는 1985년 5월 25일, 사회복지 법인 경남종합복지마을 내에 설립된 교회로 교회건물이 부랑인 수용시설 내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는 일반인은 거의 없고 다운 증후군을 포함한 정인지체장애인(정신박약), 지체부자유

70) 자활지원센터란 생활보호대상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보호대상자들이 창업 혹은 취업을 하고자 할 때, 최기에 부딪힐 수 있는 각종 위험부담과 초기 비용을 줄임으로서 자영창업 및 취업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확산시켜 저소득층의 자활을 촉진하고 조기에 자립 안정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보육센터를 말한다.

71) 강남교회 주보 (2000년도 1월 16일)

72) 동승교회 주보(2000년도 2월 6일)

73) 호산나교회 소식지 (2000년도 2월 20일)

74) 영도중앙교회 주보(2000년도 3월 5일)

75) 충남제일교회 주보(2000년도 2월13일)

76) 의령소망교회 주보(2000년도 3월19일)

자, 뇌성마비 장애인, 알코올 중독자, 무의탁노인, 부랑인, 부랑아동, 고아 등 약320여명이 있다.

서머나교회<sup>77)</sup>는 1992년부터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 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매월 20kg의 사랑의 쌀을 70여 가정의 노약자들과 독거노인들, 장애인들을 위해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 배달하고 있다.

빈곤자 복지를 위한 복지공동체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예로 두레교회<sup>78)</sup>와 다일교회<sup>79)</sup>의 '다일공동체' 를 들 수 있다.

두레교회는 노숙자 쉼터를 열어 교회에 숙소를 제공하다가 최근에 노숙자를 위해 37평의 숙소를 건축하고, 쉼터운영을 위한 5%헌금을 쉼터 운영비로 책정하였다. 현재 숙소에는 옷장, 침구 등이 준비되어 있고 1층 화장실에는 샤워실이 마련되어 있고, 숙소 휴식 공간으로 청년부실을 개조하여 신문, 잡지, TV를 마련해 두었다. 또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취업을 돕는 실무 간사를 두어서 실직 노숙자들의 재취업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장 단기 재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직자들의 재활의지를 돕고 있다.

다일교회는 89년 7월 청량리 뒷골목에서 가난한 이웃들과 병든 사람들과 집 없는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을 외면할 수 없어서 한 끼의 식사만이라도 함께 나누며 섬기면서 갱생이 삶을 도우려는 신앙의 몸부림으로 시작하였다. 지금은 행려자, 무의탁노인들을 위해 매일 점심식사(200명이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장안사회복지관 이동 목욕차 이용해 매주 토요일\*오전 9시30분부터 2시30분까지) 이동목욕, 무료이발사업을 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에는 행려자 및 무의탁노인들을 위한 복지활동으로 생필품 및 의복 제공하고 방문 및 상담을 실시한다. 그 밖에 사업으로는 '행려자, 노숙자들 야간방문 및 병원 입원지원', '도시빈민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모임',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연대활동,' '윤락여성들을 위한 연대활동', '민족통일을 위한 남북 나눔운동', '자원봉사은행을 통한 밥퍼나눔운동' 이 있다. 98년 8월에는 3004명의 천사회원이 한자리에 모여 무료병원(천사의 집)건립 추진에 이르게 되었다. 이 운동은 현재 8004명의 뜻과 정성을 모으는데까지 확산되고 있다.

---

77) 서머나교회 주보(2000년도 2월27일)

78) 두레공동체 요람 (2000년도 4월 2일)

79) 다일공동체 (2001년도 1월 21일)

## 제 2 절. 기독교 장애인복지

### 1. 사업과특성

#### 1)기독교장애인 복지이념

기독교장애인 복지이념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장애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태초의 인간의 모습인 하나님이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장애인들이 주류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주류사회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지 않고,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부여 받으며,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추구할 수 있고, 아무런 차별 없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평등하게 책임과 의무를 당당히 수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회복과 구원이라는 기독교장애인 복지이념을 구체화 하기 위한 실천 이념으로는 인간존중, 정상화, 주류화, 사회형평, 의식화를 들 수가 있다.<sup>80)</sup>

인간존중을 위한 사업으로는 자애 예방활동, 생계지원, 의료보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등이 있다. 정상화를 위해서는 차량봉사와 같은 이동권 보호를 위한 사업과 교회 내 각종 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있다. 주류화를 위한 사업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통합예배, 통합교육 그리고 주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등이 있다. 사회적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과 보호 작업장 운영 등의 사업이 있다. 의식화를 위한 사업으로는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인 바로 알기 운동과 자원 봉사활동 등이 있다. 이와 같이 기독교 장애인 복지 실천이념에 따라 기독교 장애인 복지체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80) 인간존중(humanity) : 장애인도 하나의 생명을 가지고 인간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생활 할 수 있는 복지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상화(normalization) : 장애인들이 장애를 지닌체로 불편이 없이 정상적으로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현실적으로 조성해 주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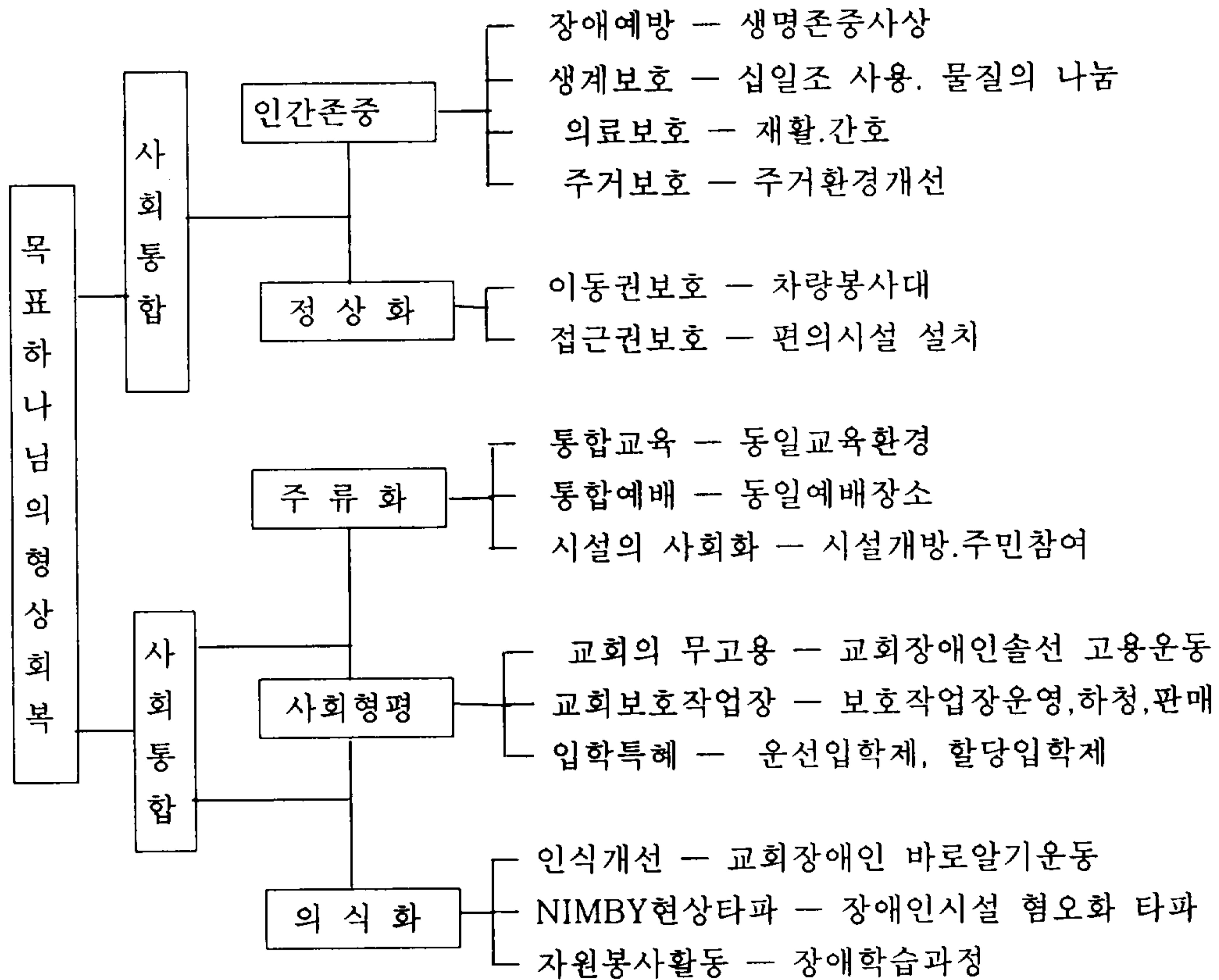
주류화(mainstreaming) :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같은 교육환경내에서 교육을 받고 서로 교제하는 통합교육을 통해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형평(Social Equity) : 장애인들에게 취업과 진학 시에 일정한 혜택을 부여받아 주류사회에 쉽게 진입 할 수 있도록 긍정적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다.

의식화(Consciousness-Raising) : 장애인을 업신여기거나 혐오스럽게 생각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어 놓거나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김기원. op.cip. p.253에서 인용.

< 표 3 > 기독교 장애인 복지체계



## 2) 사례

강남교회<sup>81)</sup>는 ‘산업 연합회선교회 활동’을 통해 매월 첫째 주 참빛 장애인 교회 미용봉사 및 선교후원사업과 참사랑 장애인 시설 미용 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남서울은혜교회<sup>82)</sup>는 정서 장애 아동들을 위한 ‘밀알학교’를 건립하여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교회의 공간을 이용하여 장애인 작업장을 설치하여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고 있다.

주요 예배 때에는 늘 수화 통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수송을 위한 차량봉사가 성도들의 자원봉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거주 장애인들을 찾아가기 위한 이슬비 전도사역과 방문 봉사활동이 진행되

81) 강남교회 소식지 (2001년도 2월4일)

82) 남서울은혜교회 밀알지 (2001년도 3월 11일)

고 있다. 또한 밀알교단, 밀알복지재단, 밀알연구소(정서장애)등과 협력사업을 하고 있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여러 유형의 장애인들을 장애 유형별로 구분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밀알부는 정서장애 아동들을 위한 부서로 예수 마당 각 부서와의 통합예배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을 위해서 교사들이 일대일로 아동을 맡아 돌보고 있다. 주일 오전에는 청각장애인 예수마당(주일학교)이, 주일 오후에는 50여명의 성인 청각장애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분반공부를 하고 있다.

지체장애인 모임인 아مانة 목장은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모든 장애인들과 이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비장애인들이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하고 양육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사직동교회<sup>83)</sup>는 아동들이 장애로 말미암아 신앙교육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함께 모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나누는 장애아동들이 모이는 소망부(주일학교의 한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소망부의 특성은 한 선생님이 한 아동을 담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회에서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유년, 초등, 소년부와와의 통합예배로 함께 사는 공동체 훈련을 실시한다. 또한 아동의 부모님들이 함께 모임을 가져 아동의 이해도모와 가정에서의 지도방법을 교육한다.

소망부 모임시간은 매주일 아침9:30-11:00까지이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정신지체, 정서장애, 뇌성마비)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내용은 찬양, 예배, 공과공부, 특별활동, 레크레이션 등이 있다.

<표4 > 소망부 프로그램

시 간	프 로 그 램	내 용
09:00 - 09:15	교사 기도회	그날의 준비사항을 점검
09:15 - 09:30	찬송과 율동	그림악보 레도를 사용하며 전문 율동교사가 앞에서 진행한다.
09:30 - 10:00	예 배	예배는 30분이내로 하며 음악예배를 드린다.
10:00 - 10:30	공 과 공 부	교사는 공과책, 색연필, 아동의 학습정도에 맞게 교사가 준비

83) 사직동교회 주보(2001년도 2월18일)

10:30 - 10:50	간 식	아동들이 쉽게,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영양가 있는 간식 제공
10:50 - 11:00	귀 가 지 도	개인의 능력차에 따라 정리정돈, 신발 신기를 훈련한다.
11:00 - 11:20	교 사 평 가	회의교사는 그 날 있었던 아동의 행동상황을 일화기록 노트에 기록

영광교회<sup>84)</sup>는 1946년 4월 대구맹아학원을 설립하면서 교직원들, 가족들과 함께 맹아학원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세워진 교회이다.

영광교회는 광명학사 학생들과 이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자 원하는 젊은 청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 시각장애인이지만 어떠한 구별함 없이 서로 섬기며 나누는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구남산교회<sup>85)</sup>는 장애인을 위한 선교기관인 ‘미문선교회’를 1983년 6월 19일에 창립하였다. 미문선교회는 처음에는 몇 사람의 장애인과 협력하여 5명이 시작하였는데, 석 달 후에는 100여명의 장애인들이 매주일 모이게 되었고 1년 후에는 300여명의 가족들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800여명의 장애인이 등록하였다.

그 동안 미문선교회를 통한 사역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 프로그램은 출석중인 장애인들에게 교육 기회를 갖도록 지도하고 있는데 심한 장애를 가지고도 방송통신 대학에 재학 중인 형제자매가 다수 있으며 장애인 가족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교인 외에도 특수학교에 6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불하고 있고 특히 교회에서 컴퓨터 교실을 개설하여 장애인에게 정보화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주일 오후 2시에 드리는 4부 예배 후에 1시간 30분 동안 2부 순서를 가지는데 이 시간에 의사, 법조인, 소수, 기업인 등을 초청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교양강좌를 가지고, 또한 각종 기능을 가지게 하려고 수예, 목공, 컴퓨터, 전기, 전자, 한복 등 일인일기의 기능을 가지게 하며 장애인 운전면허를 위한 교육과 면허시험을 돕고 있다.

재활 프로그램은 장애인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가 있다. 하나는 월 1회 여수애양병원에 10여 명씩 함께 가서 진료를 받고 있다. 진찰 결과 수술을 해야 될 분에겐 수술을 받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또 하나는 본 교회의료선교회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게 하여 장애의 정도를 알게 하는

84) 영광교회 주보(2001년도 3월25일)

85) 대구남산교회 사랑의 소식(2001년도 4월8일)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컴퓨터 교육을 통해 정보화 시대를 대비하고 있으며, 본 교회에서 실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재활기관과 연계하여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보다 직접적인 것은 장애인 가운데 금은세공, 도장 등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1:1로 기술을 지도하여 독립하게 하는데 현재 개업을 하고 있는 회원도 20여 곳이 되고, 지난해에는 장애인 4명이 컴퓨터와 첨단 시설을 갖춘 도장, 인쇄 전문점을 개점하여 벌써 2명의 기능인을 길러내어 개업 준비를 하고 있다.

재가 장애인을 위한(토요 열림 마당)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자원봉사자들 짝꿍이 되어 토요일에 모임을 갖는다. 현재 인원은 50여명의 회원이 있다. 프로그램은 첫째주 토요일에는 경건 훈련의 시간으로 말씀과 찬양, 기도, 간증의 시간이 있다. 둘째주 토요일에는 연극, 영화, 화랑, 미술관 등 문화행사 관람, 소풍, 수영, 기차여행 등을 갖고 셋째주 토요일에는 탁구, 독서, 비디오 감상, 지능 장애인들은 기초공부 등을 하며 넷째주 토요일에는 교회의 각 선교기관들의 회원들과 만남의 시간을 통해 대화와 친교의 시간을 갖는데 토요일마다 4-5시간을 함께한다.

### 제 3 절. 기독교 노인복지

#### 1. 사업의 특성

한국사회는 산업화에 의한 급격한 경제성장과 도시화를 통해, 확대가족 체계를 붕괴시켰고, 핵가족화를 양산하였다. 핵가족의 양산과 더불어 1970년을 기점으로 각종 사회문제를 포함한 심각한 노인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1970년대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전체인구에 대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은, 다음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1960년 2.9%(약 337만 명)에서 1998년 6.6%(약305만 명)로 증가 되었으며, 2000년 7.1%(약337만 명), 2020년에는 13.2%(약690만 명)로 급증될 것으로 추계된다.

〈표 5〉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추이<sup>86)</sup>

구 분	1960	1970	1980	1990	1998	2000	2020
전체인구	25,012	32,241	38,124	42,869	46,429	47,275	52,358
65세이상 노인인구	726 (2.9)	991 (3.1)	1,456 (3.8)	2,195 (5.1)	3,051 (6.6)	3,371 (7.1)	6,899 (13.2)

또 의료 기술과 과학의 발달로 점차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일자리 상실로 인한 노인의 역할 부재는 또 하나의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문제에 대한 기독교 <sup>87)</sup>노인복지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영적성장을 통한 존엄성 회복

하나님과 함께 하는 노년의 삶을 살도록 교회는 영성훈련 세미나, 성지순례, 성경학습, 영성개발과 같은 프로그램을 노년기에 접어든 그들에게 적합하도록 구성, 조정하여 제공해 줌으로서 그들의 신앙이 질을 높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자아의 가치관을 새로이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2) 가정역할 보조자

교회는 가정에서 역할을 상실한 노인들을 위한 가정의 역할을 보조해 줄 보조자로서 기능이 필요하다. 상처받고 의지할 곳 없는 노인을 위하여 교회는 편안한 가정과 같은 기능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3) 사회교육 제공자

노인들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재교육이 필요하다.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외형적, 내형적 노화만을 인식하게 된다면 심각한 소외감에 빠져들기 때문이다. 노인들의 사회적 적응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교육해야 할 내용들은 지하철 이용방법, 관공서 이용방법과 농촌 노인들의 도시 적응훈련 등 기본적인 생활 속의 지식들을 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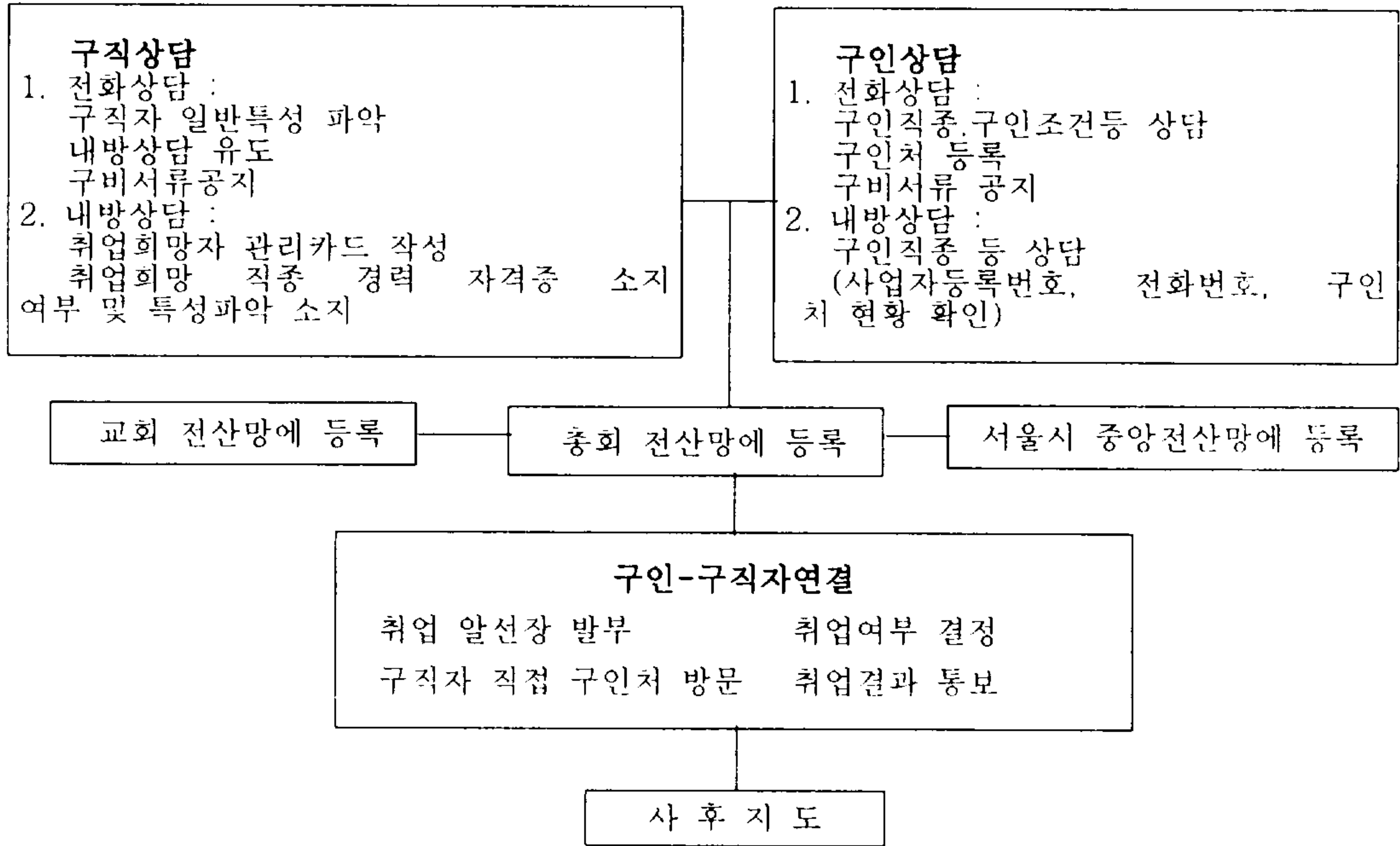
86)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사업지침』, (보건복지부, 1998), p.7에서 인용

87) 인간이 점차 연로해 가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쇠약하게 되고, 노동시장에서 이탈 되어 경제력도 쇠약하게 되고, 사회생활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는 격감하게 된다.  
이러한 쇠잔해진 노인의 모습은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 태초에 하나님께서 의도 하신 그 모습이 아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인간의 그 모습으로 인간을 회복시키려는 노력,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려는 구체적인 실천대안이 기독교 노인복지 서비스다. (김기원, 1999, p.291)

수 있다.

(4) 노인인력 은행

노인문제의 주요 내용은 경제적인 문제와 여가에 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는 형편상 물질적 지원을 해주기 어려운 경우 교회 노인 인력 은행 운영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표6> 교회 노인인력 은행 서비스 전달체계

(5) 건강상담 및 치료자

노인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건강문제이며 의료문제이다. 교회는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병원에 갈 형편이 못돼 방치 되어 있는 소외된 노인들을 찾아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교회 차원의 노력을 시도할 수 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이 있지만 무의탁, 독거 노인에게 의료비는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고, 그들 스스로의 의지로 의료 서비스를 받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2) 사례

광림교회<sup>88)</sup>는 수용인원이 250명인 ‘광림복지타운 사랑의집’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죽음을 기다리는 중환자들에게 평안과 삶의 안식처가 되고 대규모 호스피스와 무의무탁한 불상한 노인들을 위해 사용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 위안을 주고 영적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환경과 시설 운영을 하고 있다.

예은교회<sup>89)</sup>는 ‘사랑의 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로는 28명 수용 가능한 ‘사랑의 집’을 운영하고 있다.

구로중앙교회<sup>90)</sup>는 ‘사랑의 선교회’를 통해 매주 수요일에는 어려운 지역 주민에게 점심식사 제공하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이미용 봉사 및 옷, 의료 기타 선교물품을 제공 하고 있다.

남대문교회<sup>91)</sup>의 ‘남대문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연교회<sup>92)</sup> ‘대연교회 노인대학’은 1994년 개설, 노인들에게 필요한 교양강좌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매주 화요일마다 열리는 노인대학은 100여명이 참석하고 있으며 점심식사를 대접하고 있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경건회, 노래 부르기, 성경이야기, 생활교육, 건강체제, 레크레이션 등이다 .

영도중앙교회<sup>93)</sup> ‘영도중앙 노인대학’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약 100명의 노인들이 참석하여 노래, 체조강의, 점심 식사 등을 통하여 지역봉사에 힘쓰고 있다.

남산교회<sup>94)</sup>는 노인 선교회인 ‘목요선교회’를 통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배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충남제일교회<sup>95)</sup>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위한 노인대학을 운영 운영한다.

---

88) 광림교회 주보(2001년도 3월25일)

89) 예은교회 주보(2001년도 2월11일)

90) 구로중앙 소식지(2001년도 2월4일)

91) 남대문 교회주보(2001년도 2월18일)

92) 대연교회 주보 (2001년도 3월25일)

93) 영도중앙교회 주보(2001년도 2월18일)

94) 남산교회 주보(2001년도 4월8일)

95) 충남제일교회 주보(2001년도 3월25일)

## 제 4 절. 기독교 청소년복지<sup>96)</sup>

### 1. 사업의 특성

청소년 문제와 관련된 문제 즉 가출, 미혼모, 매춘, 약물중독 등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교회는 미래의 주인이 될 청소년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표명해야 한다.

#### 1) 빈곤청소년 경제적 지원사업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포함한 빈곤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은 교회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과 성도 개인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회적 차원에서는 매달 십일조 가운데 일정액을 빈곤청소년에게 물질적으로 후원할 수 있다. 교회는 성도 개인의 차원에서 빈곤청소년과 후원결연을 맺을 수 있다. 교회는 한국복지재단이나 시군 또는 지역사회복지관에 후원금을 보내거나 교회가 직접 빈곤청소년과 후원결연을 맺어 후원결연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2) 교육 지원사업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으로는 장학관사업, 장학금지급사업과 공부방 운영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장학관사업은 청소년들을 위한 기숙사를 교회가 설립하고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를 원조하는 사업이다.

장학금지급 사업은 교회가 청소년들에게 학비를 제공해 줌으로써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교회 내에 장학위원회를 설치하고 장학기금을 형성하여 기금의 이식이나 기금일부를 사용하거나 특정 교인이 특정 청소년이나 집단을 지정해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

---

96) 교회는 악화된 청소년 양육환경, 방탕한 청소년 자신의 모습, 그리고 비복지상태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부터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그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교회와 기독교단체 그리고 노력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 청소년 복지이다(김기원, 1999, p.332)

공부방 운영사업은 방과 후에 적절한 학습장소가 결여된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하여 학습공간을 마련해 주고 능력 있는 학습 지도자를 통해 학습 원조를 받게 함으로써 가족의 부족한 기능을 보완해 주고, 청소년들의 지적 발달을 도모하며, 청소년 비행의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다.

### 3) 청소년 상담사업

교회는 청소년들이 가족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활상담과 신앙상담을 실시 할 수 있다. 목회자나 청년부 전도사, 교사 그밖에 신앙의 연륜과 경험이 풍부한 자원봉사 성도들을 활용해 청소년 상담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청소년 상담은 전화상담, 면접상담, 서신상담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에는 통신설비를 갖춘 컴퓨터를 활용한 온라인 상담이 일부 활용되고 있다.

### 4) 비행청소년 구원사업

교회는 교회시설 내에 또는 교회 밖 청소년 밀집지역에 청소년 쉼터를 만들어 청소년들이 건전한 휴식을 취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줌으로써 청소년들이 비행에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 할 수 있다.

또한 교회는 심각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 교회는 청소년들에게 성서적인 인성교육을 시키고 형제애를 강조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심령변화에 의한 학교폭력 예방을 할 수 있다.

## 2. 사 례

푸른교회<sup>97)</sup>는 1999년 3월에 설립된 교회다. 담임 목사인 유혜식 목사는 전형적인 386세대의 젊은 목회자로서 영등포 지역의 유흥가를 중심으로 아가페 청소년 선교회(ATaM)를 통해 15년동안 비행 청소년 선도와 방송선교 및 장학사업을 감당하며 “청소년 사랑”(Love Teenager)과 “청소년 부흥”(Rivival Teenager)운동을 주도 했다. 푸른교회는 청소년 사역을 주어진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 ‘푸른공부방’을 통해 학업을 포기한 청소년들을 대

97) 푸른교회 주보(2001년도 4월15일)

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무료 과외 교실을 매일 오후 3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동송교회는 어린이 무료 공부방, 소년소녀 가장 돕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교회<sup>98)</sup>는 1983년에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검정고시를 치를 수 있도록 배움의 기회를 마련하고, 신앙과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서울야학’을 설립하였다.

강남향린교회<sup>99)</sup>는 설립초기부터 아직, 미 자립 상태이지만 교회 예산의 십일조 이상을 교회가 돌보아야 할 어려운 처지의 이웃을 위하여 지출 하도록 하였으며 가급적 교우들이 직접 참여하여 몸으로 봉사하는 선교사업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

교회 근처에 “통일촌”이라고 부르는 빈민촌이 있다. 송파지역 개발에 밀려 전기도 수도도 나오지 않는 판자촌이다. 경제위기를 맞아 더욱 어려워진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 지역 어린이들과 실직자 가정의 자녀들을 모아 교회에서 장학금으로 후원하는 어린이 보육시설인 “꿈나무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온 교우들이 힘을 모아 한 달에 일만원 한구좌 이상을 후원하여 많은 어린이들이 이 교실을 통하여 새 희망을 얻어가고 있다. 설립초기에 수서지역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모여사는 영구임대주택단지의 청소년 선교를 모색하다가 96년부터 지역사회선교부 산하로 “디딤돌학교”를 개설하여 매주 토요일 개설하여 이 지역 청소년들에게 도자기학교, 연극교실, 성교육 상담, 전통문화 교실등을 운영하고 있다.

성일교회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쉼터를 설치(탁구실, DDR실, 컴퓨터실, 독서실, 음악감상 및 대화실, 영화감상실, 노래방), 운영하고 있다. 또한 결식 아동지원을 하고 있다.

대연교회<sup>100)</sup>의 대연교회 공부방은 지난 1994년 3월 22일 개설하여 초등학교 2-6학년을 대상으로 오후3-6시까지 지도하고 있다.

신암교회는 ‘신암토요봉사학교’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의 올바른 의미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전화상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98) 서울교회“순례자”(2001년도4월8일)

99) 강남향린교회 주보(2001년도 4월29일)

100) 대연교회 주보(2001년도 4월1일)

주님의 교회<sup>101)</sup>는 사단법인 ‘청소년과 함께’를 설립학교 지역의 학교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있다. 그 밖에 청소년을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 쉼터 및 공부방 운영, 청소년 장학생 지원, 위드(With)기획 각종 이벤트, 청소년 상담실 운영, 도서 열람실 운영, 청소년 노래방, 길거리 농구대회, 열린 지역학교(예비중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를 비롯해 탁구장, 당구장, 컴퓨터 교실 운영하고 있다.

성산교회<sup>102)</sup>는 ‘성산청소년공부방’을 통해 단순히 공부하는 공간을 제공한다기보다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갈릴리교회<sup>103)</sup>는 1994년 12월부터 ‘희망의 집’을 통해 맞벌이 부부의 취학아동을 위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다.

공부방이 9곳(7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쉼터가 2곳, 자원봉사활동을 주관하는 곳이 1곳이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와 같은 사업은 위 교회들이 형편에 따라 실시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기독교 청소년 복지의 주된 내용은 공부방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공부방에 관한 사업으로는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특히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비행 청소년 문제에 효과적인 대처가 어렵다.

기독교 청소년복지의 모범 사례는 쉼터운영, 공부방, 장학지원사업 상담실 운영 등 비교적 청소년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의 “청소년과 함께”의 프로그램이었다.

## 제 5 절. 기독교 지역 사회복지

### 1. 사업의 특성

한국교회는 심각한 침체에 직면해 있다. 이는 가시적인 성장에만 관심을 기울여 교회가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지역사회로부터 당하고 있는데서 기인된 현상이다. 이제 교회는 사회봉사를 통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사회 센터를 자리 매김 해야 할 때이다. 본 장에서는 지역사회 복지센터로서의 교회사회 복지관의 역할과 일반적인 사업내용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01) 주님의교회 주보(2001년도 4월29일)

102) 성산교회 주보“다락방”(2001년도 3월 4일)

103) 갈릴리교회 주보(2001년도 4월 15일)

### 1) 104) 교회사회복지관의 역할

교회사회복지관은 일반 지역사회복지관과 같이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교회사회 복지관은 지역의 인적, 물적 환경의 특성을 파악하고, 주민들이 당면한 사회복지 욕구를 합리적으로 평가하며, 지역사회 문제를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주민들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사회적 자립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사회 복지관의 궁극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주민들의 자립자활에 있다. 셋째, 교회의 성도들과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발적인 봉사와 헌신으로 생활이 어려운 지역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교회와 지역사회간에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켜 지역사회와 교회가 하나로 통합되게 한다.

넷째, 교회사회복지관은 자원봉사자 모집과 교육 그리고 후원모금사업을 통해 자원봉사자와 지역 자원 등 지역사회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하며 개발하며 활용하는 역할을 한다. 다섯째,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활 향상과 자기실현을 위하여 유익한 생활정보를 보급하고 교양강좌를 실시하며 지역사회 소속감을 부여하기 위한 사회교육의 모체 역할을 한다.

### 2)사 례

경향교회<sup>105)</sup>는 기독교 사회복지운동을 통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복지법인 ‘성민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였다. 지역주민들과 무의탁 노인, 소년 소녀가장들의 복지생활을 지원하고자 지상 8층, 지하2층, 건평 620평의 공간을 확보하고 가정복지, 노인복지(노인대학 및 무료식당), 청소년, 아동복지, 장애아동 어린이집 운영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덕수교회<sup>106)</sup> 사회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 생활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는 교회와 사회의 남녀노소, 빈부, 도농 간의 화합과 일치를 이루고, 지역주민에게 복지사업을 실시한다. 크게 사회부, 환경부, 운영부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한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표에서 알 수 있다.

---

104) 교회사회복지관은 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기독교사회복지 시설을 말한다. (김기원, 1999, p.480)

105) 경향교회 주보(2001년도 4월 8일)

106) 덕수교회 주보(2001년도 5월 6일)

부 서	활 동 내 용
사업운영부	각 부서 연합사업 및 각종 프로그램 개발 사업정책 세미나, 사회봉사관 개관기념일 행사, 알뜰시장 바자회 개최
자원봉사 관 리 부	전교우 대상 사회봉사 의식 교양 프로그램 실시 자원봉사 신청서 배부와 접수, 자원봉사자 은행 운영 자원봉사자 교육, 수련회, 위로행사
농어촌부	벽촌어린이 초청 서울 견학 및 수련회 실시 농어촌 교역자를 위한 목회 세미나 개최
생활협동 사 업 부	성북구 내 교회 연합하여 강북매장 개설 유기농 농수산물, 안전한 먹거리 공급(배달)
어린이집	저소득층, 맞벌이부부 자녀(17개월부터 만6세까지)보육 연 2회 건강진단 실시, 아동건강 및 부모상담
청 소 년 문 화센터	지역내 신앙씨클를 조직, 지원 청소년교실(레크레이션, 연극, 뮤지컬, 중창, 기악, 미술 등) 운영 청소년 문화축제 행사를 개최
주부교실	주부들을 위한 성경공부, 가족건강을 위한 수지침 주부교실 프로그램 개발
상 담 실	신앙, 가정, 자녀, 건강, 법률, 세무 문제등을 상담 개인상담, 집단상담, 성격검사, 전문 상담요원 계속교육
의 무 실	목회 간호사 내근, 정기의료검진 및 방문의료검진 지역사회 위생 보조사업, 무료진료와 처방
노인학교	매주 화, 목 오전10:00-12:00 노인복지와 여가활동 프로그램 진행 점심식사 제공, 무의탁 노인에게 매주 화요일 점심도시락 배달
지역신문	'성북골 소식' 연4회 발행

〈표 7〉 소망부 프로그램 부서별 사업실천내용

목민교회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등 종합적인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신정 종합사회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다. 복지관의 주요사업은 <표8> 과 같다.

분 야	내 용	
가족복지	가족 소득증진 프로그램 직업, 부업알선, 부업교실(머리미용, 한식조리), 환자 도우미 무료 교육 및 활동 생활, 문화 프로그램	
종합상담실 운영	심리상담, 아동, 청소년, 노인들의 개별, 집단상담, 자원 상담원 교육 심리검사(MVTI, MMPI, 적성 및 인성검사, 자아개념 검사), P.E.T(부모역할 훈련)실시	
성인교양교실	한글교실, 어르신대학, 주부서예교실	
성인취미교실	취미요리, 컴퓨터, 피아노, 에어로빅, 주부노래교실	
아동/청소년 복지사업	아동집단 지도	아동 인간관계 향상집단, 아동사회성 기술 향상 집단
	아동교육 행사	꾸러기 캠프, 지하철 명소여행, 또래축제, 백일장, 사생대회, 도서실 운영
	기능교실	컴퓨터, 피아노, 미술, 속셈, 발레, 동화구연
	청소년 집단지도	진로지도, 또래관계 증진, 청소년 따돌림 예방 집단
	청소년 교육행사	길거리 농구대회, 댄스 페스티벌, 전시회
장애인 복지사업	각종 교양강좌, 건강강좌, 자원봉사자 육성사업 지역주민 통합행사(신정고을축제, 어르신 큰잔치) 홍보사업(소식지, 운영보고서, 편의시설 제공) 회의장, 문화공연장, 예식장 등으로 장소이용	
지역주민 교육	지역주민 교육, 가정방문 보호 서비스 자립지원 서비스, 가정 돌보미 파견사업	
재가복지 봉사센터	지역주민교육, 가정방문 보호 서비스 자립지원 서비스, 가정 돌보미 파견사업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랑의 빵 나누기사업, 결식아동 지원사업 밀반찬 서비스, 경로식당 운영 결연후원사업, 방문 이미용 서비스	

<표8> 복지관의 주요 사업내용

도림교회는 1980년부터 시작한 지역사회 개발교육원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교육봉사 및 복지 사업을 실시하고 이로써 주민생활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과 교회가 함께 하는 모범적인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지역사회 개발원의 사업 및 프로그램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107)

사 업	종 류	내 용
교육사업	아 동 교 육	도림유아원, 공부방
	청소년교육	청소년 독서클럽
	장 년 교 육	시민교육, 주부대학, 한글학교, 노인학교
복지사업	신용협동조합, 소암장학회, 경로식당, 도서관운영, 지역신문, 사랑의 현장갯기 운동 등	
연구사업	정 보 수 집	지역정보수집 - 지역설문조사, 지역동정파악, 지역간담회 교회내 정보수집 - 장년, 청년, 학생, 아동별 의식조사 및 자원조사 타기관정보수집 - 총회사회부, 노회, 선교기관, 사회복지 기관 사회정보수집 - 국가정책, 국제정세, 사회변동 및 지역사 회 상황
	실무자교육	실무자교육 및 훈련, 운영위원 세미나 실시, 각 부문별 자원봉사자 훈련
	연 구	각 프로그램 개발 개발원 새 정책 수립

〈표 9〉 도림교회 지역사회 개발원의 사업내용

도림교회는 지역사회개발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중심에 서서 지역사회와 가장 밀착되게 되었으며, 지역과 함께 하는 책임 있는 교회로서 구체적인 사례가 되었다.

강남향린 교회는 강동 송파지역의 건전한 시민단체, 노동조합, 기층민중단체 등 약40여개 지역의 민주화와 지방자치,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강남향린교회가 이 협의체의 결성에서부터 활동에 이르기까지 중심적 역할의 하나를 감당하고 있고 담임목사가 공동대표로 참여하며 강남향린교회 지역사회선교부가 적극 후원하고 있다. 이 지역에 경륜장 반대투쟁의 시민운동으

107)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도림교회 백서, 유의웅, 「현대교회와 사회봉사」, p.223-280을 참조

로부터 기층민중을 대변하고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역할등을 감당한다.

낙민교회<sup>108)</sup>는 2000년 4월10일에는 교회봉사관과 함께 , 교회부설 낙민 복지상담소를 개설하여 지역민들의 상담업무 및 민원상담업무를 하고 있다. 상담의 내용은 가정문제 상담, 자녀교육상담, 노인문제 및 자원봉사 상담 기타 민원상담, 신앙상담, 지역민원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열린교회를 지향하며 교회를 개방하여 컴퓨터교실, 음악 및 피아노교실, 일본어교실, 영어교실, 교회 도서관운영, 청소년공부방 운영 등의 사업을 펼치며 지역민과 함께 하고 있다.

만수감리교회<sup>109)</sup>는 지역사회봉사를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따른 전문 사회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각종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시키기 위해 세화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다.

분 야	내 용
아동복지	동화구연, 영어연극발표회, 동아리(스케이트, 영화), 현장학습, 사생대회, 지킴이 교실
청소년복지	청소년 음악회, 청소년 봉사활동, 영화상영, 동아리운영 (영화, 스포츠, 신문)
노인복지	노인무료급식, 노인교실, 경로잔치
가정복지	호스피스교육, 동화구연 모임, 한글교실, 어머니 노래교실, 헌 옷수선, 미용교실
지역복지	후원결연사업, 희망일터운영, 문화센터, 황해시대발행, 열린마음문고, 사회조사, 간담회
재가복지 봉사센터	이.미용 서비스, 무료진료, 김장김치지원, 사랑의 쌀 지원, 밑반찬 지원, 휠체어 마련해 드리기, 가정방문 및 정서 서비스 제공
IMF실직자를 위한 사업	막일터(새벽자립인력센터) 새벽인력센터운영, 취업알선(880명), 교양 및 구직관련 정보제공 (3,120명), 중식제공(600명)
먹거리 나눔터 운영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세대에 채소류 및 반찬지원(3,000명)

<표 10>세화종합사회복지관 사업내용

108) 낙민교회 주보(2001년도 3월 4일)

109) 만수감리교회요람(2001년도 4월29일)

내용면에서 보면 주부대학, 교양강좌, 무료예식장 등으로 교회를 개방하여 지역민과 함께 하는 사례가 7곳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복지관 운영이 5곳, 지역 사회개발원과 같은 형태로 지역의 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하는 곳이 3곳,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지역사회와 연대모임을 갖는 교회 2곳 순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교회 개방이나 복지관을 교회가 주체가 되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 경영을 하는 경우는 기독교 지역사회복지에서 지향하는 지역사회 복지센터로서의 기능과는 거리가 있다. 전문성과 체계성, 지역공동체 형성이라는 목적에 부합되는 사례는 덕수교회의 지역공동체 생활교육원과 낙민교회의 교회 봉사관 및 복지상담소, 도림교회의 지역사회개발원 등을 들 수 있다.

## 제 6 절. 기독교 사회봉사

한국교회는 경제성장과 도시화에 부응하면서 1970년대와 80년대에 지속적인 교회 성장에 초점을 맞추었다.

교회는 도시 집중화와 산업화에 발맞추면서 전도운동의 확산을 배경으로 교회 성장에 총 집중하였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교인 확장을 위하여 교회의 건물과 시설을 늘렸다. 결국 교회는 교회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목적 정지 현상을 초래하고 만다. 교회성장이 교회의 일차적 목표가 되고 다른 모든 목적들을 대치하고 말았다. 개 교회 주의와 결합된 물량주의는 모든 교회내의 자원을 교회 내부로 집중시키기 마련이다.

그리하여 교회는 물적 자원을 예배당 건축과 사택건축, 선교관건축, 수양관 건축 묘지 건립 등의 순서로 끝없이 교회 내부에 투자 하였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교회 안에 모든 자원을 투자 하면서 교회 자체의 확장에만 몰두하는 물량주의가 원인이라 할 수 있다.

1990년 전후하여 한국교회에 많은 위기의식을 불러 일으켰고 교회 성장의 둔화가 두드러진 현상으로 나타나 한국 교회에 많은 위기의식을 불러 일으켰고 사회적 공신력의 상실은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교회는 교회내부의 개혁과 함께 이웃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되고 있다.

한편 구체적인 사회복지와 사회복지 활동이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표11>분야별 기독교 사회 봉사활동 현황

분 야	사 례 (73%)	종 류(지역/교회)
빈곤자	11 (15%)	수서지역 생계곤란 가정 물질후원 (서울/강남/강남교회) 노숙자 공동체 (서울/강동구/수림교회) 노숙자 쉼터 (서울/영등포구/두레교회) 노숙자 한 가정 돕기 (서울/종로구/동승교회) 지역주민 생활비 돕기 (서울/종로구/동승교회) 밥 퍼나눔 운동 서울/다일교회) 무료급식 (부산/사하구/호산나교회), (부산/영도구/영동중앙교회) 사랑나눔 선교회 (대전/서구/충남제일교회) 경남통합 복지 마을 (경상남도/의령소망교회) 사랑의 쌀 나누기 (전라남도/서머나교회)
노 인	13 (17.8%)	광림복지타운 사랑의 집 (서울/강남/광림교회) 사랑의 집 (서울/관악구/예은교회) 사랑의 선교회 (서울/구로구/구로중앙교회) 남대문 노인대학 (서울/중구남대문교회) 무료급식 (부산/금정구/성일교회) 대연교회노인대학 (부산/남구/대연교회) 영도중앙노인대학 (부산/영도구/영도중앙교회) 목요선교회 (대구/중구/대구남산교회) 사랑의 마을 무의탁노인시설 (대전/동구/대성감리교회) 노인대학 (대전/서구/충남제일교회) 늘푸른학교 (경기도/의정부시/신곡교회) 경로대학 (경상북도/구미시/성산읍교회) 경로대학 (경상북도/포항시/포항제일교회)
장애인	9 (12.4%)	참사랑 장애인 시설 미용보사 (서울/강남/강남교회) 밀알복지재단 (서울/강남/남서울은혜교회) 소망부 (부산/동래구/사직동교회) 광명학사시각장애인 학생기숙사 (대구/남구/영광교회) 미문선교회 (대구/중구/대구남산교회) 장애우교회학교 사랑부 (인천/연수구/연수제일교회) 장애인선교부 (경기도/안산시/온유한교회) 예티쉼터지체장애인 (경상남도/예티쉼터교회) 온양농아인교회 (충청남도)

<p>청소년</p>	<p>12 (16.6%)</p>	<p>푸른공부방 (서울/영등포구/푸른교회)  소년소녀가장돕기 (서울/종로구/동승교회)  서울야학 (서울/종로구/서울교회)  디딤돌학교 (서울/중구/강남향린교회)  무료성일학, 청소년 쉼터 (부산/금정구/성일교회)  대연교회 공부방 (부산/남구/대연교회)  신암토요봉사학교 (대구/신암교회)  사단법인 “청소년과 함께” 운영(경기도/고양시/주님의교회)  성산청소년공부방 (경기도/안산시/성산교회)  아동희망의집 탁아사업 (서울/구로구/갈릴리교회)  어린이 무료공부방 (서울/종로구/동승교회)  꿈나무교실 (서울/중구/강남향린교회)</p>
<p>지역</p>	<p>17 (23.2%)</p>	<p>성민종합사회복지관 (서울/강서구/경향교회)  교회개방 (서울/금천구/성광감리교회)  교회개방 (서울.종로구.동승교회)  지역공동체 생활교육원 (서울/성북구/덕수교회)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서울/양천구/목민교회)  지역사회와의 연대‘강동송과 민주시민회의’ (서울/중구/강남향린교회)  낙민복지 상담소 (부산/동래구/낙민교회)  영도중앙주부대학 (부산/영도구/영도중앙교회)  대구아름다운학교 (대구/신암교회)  세화종합사회복지관 (인천/남동구/만수감리교회)  광천종합사회복지관 (광주/서구/광주광천교회)  지역사회봉사대운영 (경기도/공양시/주님의 교회)  공동체 설립 (경기도/부천시/가슴벅찬교회)  지역사회선교사업지역주민을 위한컴퓨터교육 (경상북도/포항시 포항충정교회)  사회복지관 운영 (전라남도/여수중앙교회)  서곡장로교회 (전라북도/서곡장로교회)</p>
<p>기타</p>	<p>11 (15%)</p>	<p>대전교도소 방문 선교후원 (서울/강남/강남교회)  누가선교회무료진료 (서울/강남/성은교회)  무료진료 (서울/중구/경동교회)  누가의료선교회 (대구/중구/남산교회)  의료선교팀 운용 (광주/새순교회)  외국인 노동자 선교 (서울/구로구/갈릴리교회)  외국인 근로자 선교회 (대구/중구/남산교회)  선한농부마을 (충청북도/순복음후영교회)  해비타트운동-사랑의집짓기운동(충청북도/충주소망감리교회)</p>

자료 : 예장총회 요람 (년도,1993)

위의 사례들을 통해서 본 한국교회의 사회복지 참여는 지역복지, 노인, 청소년, 빈곤자, 장애인 복지 순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복지 참여에 관한 다른 조사와는 상이한 면이 있다.

<표12>기독교 사회 봉사활동 현황

분 야	사 례	종 류
아동복지	493 (24.6%)	선교원(204),유아원과유치원(181), 어린이집과놀이(61) 어린이 공부방(22), 농번기 탁아소(7), 기타(18)
청소년복지	246 (12.3%)	청소년 공부방(112), 장학사업과 장학관(116) 계절학기(5), 야학(7), 기타(6)
여성복지	43(2.1%)	주부교실(39), 직업훈련(1), 모자원(1), 후원사업(2)
노인복지	204 (10.2%)	노인대학(90), 경로잔치(78), 양로원과 요양원(6) 급식프로그램(6), 경노당과 노인정(6), 재가노인복지(9), 기타(9)
장애인복지	32(1.6%)	장애인교회(6), 사회재활(8), 상담(1), 공동체(2), 기타(5)
보건정신 의료	46 (2.3%)	무료진료(30), 병원봉사(3), 보건위생과 방역(4), 이미용 기타(9)
교정복지	9(0.4%)	재소자서비스(6), 출소자서비스(2), 기타(1)
지역사회 복지	151 (7.5%)	결혼교실(2), 도서실(22), 시민대학(17), 농산물공동구매(22), 소특중대사업(4), 무료급식(5), 바자회(25), 인권사회운동(5), 영농교육(6), 소식지(15), 종합복지관(4), 기타(24)
기타	62 (3.1%)	가족상담(12), 노동상담(3), 공원선교(2), 빈민구제(31), 특수선교(5), 기타(9)

자료 : 예장총회 요람 (년도 1993)

<표2> 는 예장 총회에서 1993년에 2,008개를 조사한 내용이다. 110)

예장총회의조사 결과는 아동, 청소년, 노인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비교적 접근하기 쉽고, 경비도 적게 드는 프로그램 순서로 조사되었다.

첫째, 한국교회의 사회봉사의 대상은 순서에 차이는 있지만 청소년, 아동, 노인, 빈곤자 등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대상을 상대로 한다는 점이다.

둘째, 한국교회의 사회복지 참여의 내용을 보면 주로 공부방, 장학사업, 무료급식, 노인대학, 경로잔치 등 비교적 경비도 적게 들고 교회 입장에서 접근하기 편한 프로그램이 많이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사회복지 참여가 형식적이고 비전문적이라는 사실을 반영한다. 이제 한국교회의 사회복지 참여에 대한 실태를 기독교 사회복지의 사업의 내용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 보고자 한다.

---

110) 노치준, “사회복지를 향한 개신교의 사회봉사”, 이삼열외, 『한국사회발전과 기독교의 역할』.(서울:도서출판 한울),2000, p.179.

## 제 4 장 교회사회복지사업의 문제점

### 제 1 절 교회내 자원활용의 비효율성

김기원교수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교회가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겪는 어려움으로 재정부족, 시설부족, 전문지식부족, 목회자 인식부족, 교인호응부족, 제직인식부족, 번잡한 절차, 주민호응부족 등을 제시하고 있다.<sup>111)</sup>

또한 한국교회 사회봉사 사업의 조직에 따르면 사회복지 사업의 전개에 있어서는 어려움으로 재정의 부족, 교회시설 및 공간의 부족, 지식과 경험부족, 교인들의 소극적인 태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sup>112)</sup>

이상의 조사결과는 결국 교회가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로, 재정과 시설, 그리고 인적자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는 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회는 그 외형상으로나 보나 질적 측면에서 보거나 여타 사회단체에 비하여 막대한 재원과 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이나 시설, 그리고 인적자원 등이 교회의 사회복지 사업에 있어 여전히 시혜 요인으로 등장하는 것은 결국 자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운용이 미흡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 내부에서의 자원의 효율적 활용은 교회 사회복지 사업을 극대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우선 재정문제를 보면, 교회의 재정부족이 사회사업 활동의 가장 큰 저해요인이 된다고 다수가 지적하고 있으나, 실제 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교회의 사회봉사 활동은 교회의 재정능력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재정능력을 나타내는 총예산, 교인수, 교인이 생활수준 등의 변수는 총예산에 대한 사회복지 사업의 비율과 별로 상관관계가 없다. “한국 교회의 사회복지 참여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교회의 존속기간이 길면 총예산은 증가하는 방향이 있

111) 재정부족 44.5%, 시설부족 14.6%, 전문지식부족 13.3%, 목회자 인식 부족 8.8%, 교인호응부족 8.7%, 제직인식부족 5.4%, 번잡한 절차 2%, 기타 1.7%, 주민호응부족 1%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기원, 전개논문, p. 107

112) 재정문제 40.2%, 시설과 공간부족 17.6%, 지식과 경험부족 15.8%, 교인의 소극적 태도 9.2%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자원봉사능력개발연구회, 전개서, p. 136

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복지 사업비 비율이 증가하지는 않고, 오히려 존속기간이 짧아 총예산이 작은 교회일수록 사회복지사업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봉사”의 결과에서도 교인수나 결산의 액수는 사회복지 사업비 지출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sup>113)</sup>

따라서 문제는 앞장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재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복지에 대한 의지와 실천력에 있는 것이다.

시설자원 부족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교회의 시설은 주로 예배와 선교교육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사회복지 사업 프로그램의 운용을 위한 배려가 부족하다. 사회봉사 사업은 기존의 건물이나 시설을 이용해도 충분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 교회 밖에 다양한 사회사업도 가능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자원의 부족은 사회봉사 사업부진의 정당한 원인이 될 수 없다.

또한 인적자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기독교 인적자원의 통계가 불일치하여 정확한 수의 측정이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전체 종교인구의 25%에 가까운 비율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이전과는 달리 성도들의 의식 및 교육수준이 향상으로 우리나라 교회는 막대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우수한 인적자원의 보유는 기독교 사회복지의 전개에 있어서 이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전문적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커다란 자산이 될 수 있다.

교회는 여타 사회단체 및 개인에 비하여 막대한 물적·인적자원과 함께 교회라는 시설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회복지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적 시설의 미비로 말미암아 그 효율성 확보에 미흡한 것이다.

따라서 교회가 지역 사회복지의 중심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회시설의 개방이 요청되는 것이다.

---

113) 장종녀, 전계서 논문, p.68.

## 제 2 절.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부족

한국교회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청소년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이 대표적인 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 나타나 것과 같이 노년인구의 증대에 따라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사업이 늘어나고 있다. 반면에 장애인이나 지역사회를 위한 전문적, 포괄적 프로그램들을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프로그램의 내용면에서도 시설방문이나 지원 사업, 장학사업, 이재민과 수재민 일시적이고 단순구호적인 사업들과 어린이 선교원, 유아원 등 선교효과와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 할 수 있는 유료 프로그램의 비중이 높은 반면 지속성과 예산지원이 필요한 전문적 프로그램이나 노동 상담 같은 진보적 프로그램은 별로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제한된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사회에서 교회의 사회복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심각한 각종 사회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회복지 사업의 대응이 필요하다.

## 제 3 절. 목회자의 사회복지 실천의지의 결여

우리나라 목회자들 개개인의 사회복지와 사회 참여의식은 이미 상당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사회봉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천을 위한 측면에서는 아직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즉, 적극적인 사회복지 사업 전개를 위한 일반 대중의 인식확산과 목회자의 실천의지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사회복지 사업의 관심을 점차 사업전개로 유도 할 방안의 강구로 목회자에 대한 사회복지 교육 및 훈련의 기회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실천방안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에 자리 잡은 교회 공동체가 그 지역사회를 섬기는 활동을 해야 한다고 할 때 그 교회가 부담한 목사는 교회 구성원의 신앙적 요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목회자들 사회복지 의식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의식 수준은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 교회의 사회봉사사업의 실태에 있어서는 부진한 편이다. 교회 내에서 어떤 정책(政策)을 수립하는데 있어 목회자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개신교의 특성상 목회자의 사회복지 의식은 교회의 사회사업 및 복지 프로그램의 추진과 계획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사회봉사 분위기 형성이나 정책수립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이는 목회자가 교회 사회사업 추진의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114) 교회의 목회와 선교 방향은 주로 목회자의 의식이나 성향에 따라 결정된다.

#### 제 4 절. 개별교회 중심주의와 전문성 결여

교회의 사회복지 사업은 선교라는 독특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없이 사업을 계획, 실천하고 있기에 많은 문제와 한계점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개별교회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노력은 자칫 내부 지향적으로 교회 자체 문제에만 몰두하는, 그래서 사회적 책임에는 등한시 하는 탈사회적 교회가 되게 만드는 수가 많다.

교회가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제 한국교회의 사회 참여는 지역 단위별 연합회의 활성화이다. 현재 대부분의 교회와 기독교 단체가 사회활동의 참여에 있어서 개별교회의 중심으로 활동하는 한 비능률적인 효과를 경험해 왔다고 보는 것이다.

1980년대 후반에 여러 교회 지도자들이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여 많은 교육과 연구에 동참 하였으나, 아직도 사회복지의 전문성 문제는 효율적 실천방안의 제시와 함께 기독교 사회복지 사업의 주요과제로 남아 있다. 목회자들을 교회 사회 복지사업의 책임을 복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응답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교회 사회복지 사업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목회자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목회자 양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전문성 제고에 고무적이지 않을 수 없다.

---

114) 최무열, 전계서, p. 164

## 제 5 장 교회사회복지사업의 개선방향

### 제 1 절 교회시설자원 및 인적자원의 효율

#### 1. 교회 시설자원의 효율적 활용

교회 시설은 사용하는 시간보다 사용하지 않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 주로 일요일에 집중되어 있고 그 밖에 시간은 제한적으로 사용하기에 비어 있는 경우가 많다. 교회시설을 개방하여 이용하도록 한다면 기존시설활용의 극대화를 통한 사회복지사업을 실시 할 수 있을 것이다.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위한 ‘방과 후 공부방’을 운영하는 것이 하나의 예이다. 이 사업은 이미 서울이나 기타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IMF 경제위기 이후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사업에 민간단체들이 참여가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의 저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특기교육, 인성교육 등을 실시, 방과 후 교실의 복지시설, 초등학교, 종교시설, 구립·민간보육시설 등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 9월 157개소에서 5,025명이 보육되고 있다.

〈표13〉 방과 후 교실 및 이용아동 현황 (2000년 9월 현재)

구 분	합 계	초등학교	복지시설	종교시설	구 립 보육시설	민 간 보육시설
시설수 (개수)	157	35	29	23	37	28
반수(반)	168	36	31	25	40	36
정원(명)	5,025	970	1,042	1,076	1,165	772
현원(명)	3,912	836	848	851	844	533
비율(%)	77.8	86	81	79	72	69

자료 : 서울특별시

또한 영육아보육법 규정(방과 후 교실은 아동 1인당 3.63㎡의 시설면적 확보해야 함)에 미달되는 시설에도 초등학교 저 학년생을 방과 후 유해환경으로부터

터 안전한 보호와 전인적 성장을 돕고자 정부의 지원 없이 방과 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다. 실업극복연대, 카톨릭 선교회 등 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방과 후 공부방은 이용자의 대부분이 저 소득 또한 결손가정의 학습부진아 등으로 초등학생이고, 재원은 후원금 및 기부금, 종교단체의 보조, 공공근로 등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시설환경은 대부분이 종교시설 무상사용, 임차건물, 가건물 등이다. 교회 시설을 개방하는 사업에 교회가 보다 적극적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교회 사회복지사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초석을 놓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회의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할 때, 예배위주의 공간이 아닌 다목적 용도로 공간을 설계하여 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 2.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교회에는 많은 여성이 있다. 교회의 갱신은 이 여성인력의 활용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여성이 교회발전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한다. 여성인력을 묶어 두면 교회의 활성화는 둔화 될 뿐 아니라 여성의 종교 활동을 보장하는 타종교로 몰려갈 수밖에 없다. 특히 보람을 느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된다면 교회의 발전은 물론 신앙의 성숙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유익한 결과를 갖게 된다. 현재 부서의 개념은 너무 성별 개념을 가지고 나누는 경향이 있다. 이제는 남녀가 하나로 봉사공동체로 태어나 힘 있는 선교협력체를 이루는 것은 중요하다.

교회의 인적자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교회사회복지사업의 성공을 예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1세기는 전문화 시대인데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목회에 임할 수는 없다. 당회나 제직회, 혹은 각 기관이 실제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교회가 이제는 교인들이 참여한 팀 사역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도 시대의 요청에 따라 효과적인 대처를 하지 않으면 몰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구역원들의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구역 헌금을 봉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한다면 봉사의 영역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구역별이나 혹은 몇 개의 구역을 묶어서 지역 내 소년·소녀가장, 노인세대, 거택보호자, 노인정 등 구체적인 봉사의 현장을 책임지게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목회자 개인의 능력에 의지하기보다는 교회 전체가 사회를 향해 나아가되, 교인이 전문화된 각 분야의 목회자들을 통해 훈련받고

상담하며 현장에 나가서 일하도록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교인에게 이러한 사역을 맡길 때 목회자와 교인의 관계는 서로가 동역자로 인식함이 매우 중요하다. 교회사회복지사업에 자원봉사자의 유무는 교인 수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나 95%의 교회가 자원봉사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회는 각계각층의 전문성을 가진 풍부한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면 사업의 효율성을 크게 제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 사회복지사업의 전개에서 요청되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지도자의 자질향상, 사회복지요원배출노력,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전문 인력의 확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무의탁자와 성도와의 결연 추진 및 사회사업가와 목회자에 의한 육체적, 정신적 교화 등 영적 교정 작업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교회가 인적 자원의 활용에 있어서 효율적인 사회봉사훈련 교육과 적재적소 배치 및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 제 2 절. 통합 프로그램의 개발

교회에서 실시하는 복지사업은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봉사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 교회의 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파악하여 복지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을 갖고 적절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주민들의 권익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맞벌이 부부를 위한 탁아사업, 공부방, 독서실 운영, 신용협동조합, 장학사업, 알뜰시장, 농산물 직거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은 동회나 구청의 사회복지과와 협의하는 것이 좋다.

교회가 사회복지사업을 계획하고 실시할 때 한국 사회복지체계 내에서 교회 사회복지사업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이해하고 이에 따라 개 교회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인적자원, 시설자원, 재정자원, 조직자원 등 교회내 지원체계를 사정하고, 그 가용성과 동원성, 지속성을 평가한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와 욕구를 조사하고, 교회가 이에 어떻게 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 후에 이미 사정된 교회내 복지자원 체계와 예비욕구조사의 내용을 상호 역동적인 관계에서 검토 후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지역 내 교회들과 연대하여 지역사회의 개발과 사회구조 개선을 도모하는 사회봉사가 되어야 한다. 지역 내 타 교회들 간의 연대는 필수적이다. 개

별교회중심주의를 탈피하여 지역교회 연대를 통하여야만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문제 중에서 청소년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청소년보호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보다 세심한 배려가 동반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으로 청소년 문제의 사전 예방적 프로그램 공급방안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현대 사회가 점차 고령화되고, 노인들의 욕구가 증진함에 비추어 아직 노인복지서비스의 제공수준은 미약한 실정으로 노인재가 서비스와 노인주간 보호를 위한 자원봉사의 확대, 호스피스사역의 확대 등 보다 실생활에서의 노인복지사업의 전개를 위한 프로그램개발이 시급하다.

장애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수용시설확대,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을 일원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보다 적극적인 사회화 노력을 위한 일반대중의 의식개혁사업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봉사사업을 위해서 철저한 조사연구를 통한 지역주민의 욕구 및 지역사회실정에 입각한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고, 교회의 직접참여나 타 기관과 광의 연계 및 지원이 한 방법이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교회 사회복지사업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들을 극대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일 때 재도약하는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 제 3 절 목회자 사회복지의식전환과 재정구조 개편

#### 1. 목회자 사회복지의식전환을 위한 교육제도의 도입

실제로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그 교회에 소속되어 사회복지기관에서 봉사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문가의 영향보다는 목회자의 영향이 훨씬 강하며, 이러한 교회의 구조를 감안할 때 목회자의 복지의식 변화는 곧 교회전체의 대 사회복지 인식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목회자의 의식과 행동이 교회의 사회복지 실천과 사상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목회자의 의식전환은 성도들의 사회복지 참여를 유도하고 나아가 성도들의 신앙성숙을 꾀할 뿐 아니라 사회 속의 통속적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아직 교회의 사회복지 실천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목회자들의 복지의식은 완전하게 고착되지 않았거나 형성단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한국교회는 목회자들이 올바르게 사회를 인식하고 사회와 함께 걸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교육의 장을 마련함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본다. 이 교육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전환은 물론 구체적이며 바람직한 정책을 계획하고 올바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안목을 제공해야만 한다.

사회복지에 관련된 과목을 이수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92%가 목회자가 찬성함으로써 사회복지 교육 훈련에 강한 욕구를 나타내었다. 이는 참으로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 목회자들이 적절한 교육과정을 거치기만 한다면 교회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새로운 장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목회자의 사회복지의식 전환을 위해서는 전문목회자 양성이라고 응답한 목회자들이 60%에 달하고 있어 이런 의식이 실천에 옮겨진다면 교회 사회복지사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 복회의 한영 역으로서 전문가를 투입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효율적인 교회 사회복지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복지의식 함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지도자 배출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신학대학내에 사회복지학과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가정할 때 이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는 이러한 요구와 기대는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 1999년 현대 일반 사회복지학과나 사회사업학과의 증설은 물론 상당히 많은 신학대학 내에 사회복지학과가 개설되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교회 사회복지사업의 전망은 밝을 것으로 기대된다.

## 2. 재정구조 개편을 통한 사회복지비 확충

교회공동체는 그 자체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밖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교회공동체가 안에만 머물러 있는 시야를 밖으로 돌려야 한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탄식과 슬픔이 있는 사람, 지역사회와 클라이언트의 필요 충족과 대인 제시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회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의 재정자원의 공개와 투명성, 명분 있는 지원, 과감하고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재화 서비스를 적극

실시해야 한다.

교회 예산편성에 있어서 순수한 사회 봉사비로 책정한 예산은 불과 몇 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시적이고 전시효과적인 경우가 많고, 그나마도 주로 어린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프로그램에 국한되어 있다.

교회의 봉사는 권위주의적 제도에 의해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헌신적인 자원봉사를 통해 제공되는 것이라고 볼 때, 교회 구성원들은 사회봉사를 위한 무한한 자원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교회재정의 새로운 개편이 요구된다. 이는 곧 목회자들이 사회복지 확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사회복지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은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교회의 사회복지의 과제는 역시 인적, 시설적 자원을 지역복지에 동원함과 동시에 강력한 재정차원의 참여가 요구된다. 교회공동체의 강력한 재정적 지원은 교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지역사회 문제와의 개입과 접근성 제고를 요청하게 된다. 교회공동체의 대 사회적 서비스를 향한 재화와 사용은 신자들로 하여금 영적인 안정감, 자기 정체성의 확인과 함께 새로운 사회복지서비스를 향한 동기 부여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 제 4 절. 교회 사회복지 사업의 과제

이제 한국 사회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고 있다. 한국교회가 교회 안에서 지역사회의 관심을 회복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 지역사회와 사회로부터 외면당하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115)

정무성은 지방화 시대에 교회의 역할에 관해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116)

한국사회의 변동 따라 교회들은 가족기능의 회복 및 가정의 가치 강화, 여성의 복지증진, 소외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통일한국에서의 북한동포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이다.

---

115) 최무열, *op. cit.*, p.286

116) 정무성, “지방화시대 교회의 사회복지학적 역할에 관한 연구” .

첫째, 가족기능의 회복 및 가정의 가치강화이다. 가정의 가치강화이다. 가정의 파괴나 가족의 해체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상당한 역기능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가족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노력이 가족성원, 교회, 사회전체에서 일어나야 한다. 특히 청소년 자녀문제 예방의 제일 우선과제는 건전한 가정환경을 육성해 주는 일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교회에서는 온 가족성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예배형식이 개발되어야 한다. 주일 대예배를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녁 혹은 수요일예배 등에는 온 가족이 호기심을 가지고 모일 수 있는 예배형식과 내용이 개발되어야 한다. 목회차원에서 사회의 평화와 정의의 근본이 되는 가족복지를 위한 가족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오늘날 부부 중심의 핵가족 사회에서는 가족문제를 상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체계가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새롭게 가정을 시작하는 젊은 부부들은 남편과 아내의 역할 갈등, 성격이나 태도의 상호 이해부족 등으로 자주 마찰을 겪을 수 있다. 교회에서는 교회 내에 가족상담 전문 부서를 설치하여 수시로 가족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부 세미나, 가족 세미나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교인 가정들이 화목하게 보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 자녀들을 위해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교육,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여성복지에 대한 관심이다. 여성이 사회복지사업의 특별 관심대상이 되는 이유는 여성만이 가지는 임신, 출산 및 양육의 기능을 중심으로 여성은 특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며, 사회변동과정에서 미혼모, 모자가정, 이혼여성, 윤락여성, 저임금 근로여성, 빈곤여성 등의 증가로 인해 여성의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교회는 우선 늘어나는 근로여성들의 복지를 위하여 많은 교회들이 영유아 보육(탁아)사업을 전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혼여성들을 위한 자활의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미혼모와 윤락여성들을 위한 상담과 직업안내, 결손가정을 위한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사회운동에 단체로서 참여하여 여성문제의 예방에도 주력하여야 한다. 특히 최근 우리사회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문제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보호와 함께 조직적인 예방활동을 펼쳐야 한다.

셋째, 소외계층을 위한 체계적인 사회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교회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전환에서부터 사업이 계획되어야 한다. 장애의 원인은 선천적인 경우 빈곤이나 질병, 약물중독, 환경오염, 의약품 남용 및 오용 등 주로 병리적 사회구조에서 비롯되며, 후천적인 경우에도 산업재해나 교통사고 등에 의한 것이 많으므로 장애는 사회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는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으며,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은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되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 따라서 장애인의 복지는 사회연대책임의 기초 위에서 국가와 사회가 권리로서 보장해 주어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교회도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기독교의 첫 번째 과제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는 일이다. 우리나라 장애인의 복지를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편견, 이로 인한 차별이다. 이에 기독교인 자신들부터 의식을 개혁하고, 나아가 국민들의 의식을 개선 할 수 있는 운동을 각종 사회단체와 연합하여 전개해 나가야 한다. 또한 적극적으로 장애인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우선적으로 개교회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마련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교외와 기독교인들이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법제화하여 일정 범위 안에서 기업들이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기독교 실업인들이 솔선수범하여 장애인에 대한 고용을 활성화 시키고 나아가서 개교회도 각급 직원으로 장애인 우선고용을 고려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넷째, 노숙자를 위한 대책마련이다. 최근 노숙자의 문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부도와 실직 등으로 가출, 길거리를 방황하는 노숙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매일 1만여 명씩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고 거리를 방황하는 해고 가장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이들을 구제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복지부는 노숙자 구호에 주로 종교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정작 일선에서 지원해야 할 지자체는 예산이 부족하고, 주변 상인 및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노숙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4월 현재 최소한 3,000명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5월 이후에는 5,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노숙자는 대부분 30대(26%), 40대

(45%)이며, 가족이 있는 기혼자도 25%에 다하며 이들 대부분은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또한 노숙자의 76%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실직했으며, 실직 전 직업은 대부분 공장노동자, 건설기능 인력이나 막노동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과거의 부랑인들과는 달리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기 위해 노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호시설 입소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의 교회들은 노숙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응급구호와 함께 전문 사회복지 기관들과 연대하여 가정복귀와 취업알선을 위한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북한동포를 위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축이다. 최근 한국교회는 굶주린 북한동포를 돕기 위한 식량지원을 통해 통일 후 교회의 역할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통일 후 한국교회의 사회적 위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갖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통일 후 한국교회의 사회적 위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갖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현재의 한국교회의 양적 성장의 정체를 탈피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과 전혀 다른 이데올로기와 김일성·김정일 부자만을 절대적으로 신봉해온 북한 주민에게 남한에서와 같은 직접적인 전도 전략은 심한 혼동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이는 교회의 이미지를 훼손하여 결과적으로 통일 후 교회의 사회적 위상을 추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독일의 경우는 통일 후 서독의 교회가 적극적인 사회복지서비스 활동을 통해 사회의 안정과 통합에 기여함으로써 교회의 사회적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선교를 이루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한의 북한 선교 정책도 교회확장이나 교인 수 확보를 위한 호전적인 자세보다는 사회복지 사업을 통한 이미지 심기 전략을 우선적으로 구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상근은 “한국 지방자치와 교회의 역할”에서 지자체 시대에 교회의 위상과 역할에 관하여 다음 다섯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sup>117)</sup>

첫째, 교회의 자기 민주화 노력을 말한다. 교회는 그 성격상 권위문화가 지배적인데, 그 이유는 성직자가 중심이 되고 그의 지도력과 인격적 신앙적 감화력이 절대적인 기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이 흔들리는 경우 교회는 곧바로 분열되거나 헤어 나올 수 없는 갈등으로 빠져든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남과 여, 노와 소, 부와 빈, 상과 하가 차별되지 않고 고르게 참여하는 자기 민주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교회는

117) 김상근, “한국 지방자치와 교회의 역할”, 한국기독교장로회 신학연구소편, 『지방자치와 교회의 역할』, (서울: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신학연구소, 1995), p.55-74.

지자체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음을 말한다.

둘째, 교회를 지역사회 센터로 개발 할 것을 말한다. 지역의 문제가 교회로 모이게 하고 교회가 그 해결을 위한 조직사업의 역할을 중심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다. 청소년, 미혼모, 극빈자, 신체장애인등 지역의 사회문제, 노인휴게시설, 탁아소, 공부방, 자모실 등 서비스 영역, 소비자보호, 신용협동조합 등 경제생활, 쓰레기, 폐품재활용, 환경, 생활협동조합 등 창조세계의 보전 문제에 이르기까지 필요하고 가능한 모든 일에 교회의 역량을 열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 사회사업전문인, 지역프로그램전문인, 홍보와 제작 전문인 등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목사의 도덕적 권위와 전문인의 전문성이 결합하여 지역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지자체의 선도 기능을 말한다. 지역 내에 지자체 선거 감시위원회 성격의 조직을 만들어 참다운 지역 일꾼을 선출하기 위한 여론 형성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교회의 일치와 연대를 말한다. 지금까지 교회들은 교회 보존내지 팽창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지역 내 교회들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내 교회들은 봉사와 선교를 과제로 삼고 경제 관계에서 필연적으로 동지와 동반관계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 제 6 장 결 론

우리 사회는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 세계화 등으로 급변하는 사회변동을 겪고 있으며 최근 IMF 구제금융기를 맞아 교회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그 어느 때 보다 다양하고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는 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는 교회의 양적 성장에 따른 사회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이에 대한 응답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인간의 존엄성, 사랑을 통한 행복권보장, 봉사를 통한 공동체 건설, 사회 연대 등과 같은 기본적 가치는 구약성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신약성서에서는 예수님의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 그리고 이를 실천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사업은 선교사들에 의해 사회복지사업이 시작된 이래 한국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하는 사명적 입장에 서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변화하는 사회문제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 인해 사회의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기에 앞으로 우리나라 교회의 사회복지 방향성의 제시는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회 내에서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목회자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개신교의 특성상 목회자의 사회복지의식은 교회의 사회사업 및 복지프로그램의 추진과 계획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사회봉사 분위기 형성이나 정책수립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이는 목회자가 교회 사회사업 추진의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사회복지의 주체는 교회가 되어야 하며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다. 사회문제에 교회가 개입해야 하며 교회의 사회복지사업이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교회는 어떤 형태로든지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노인복지와 아동복지를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을 설립하기를 가장 많이 원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의 목적은 이웃사랑실천에 있으며, 교회의 본래 목적인 선교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회가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자가 복

회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교회의 사회복지사업이 복지전문가에 맡겨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사회복지사업실시에 있어서 문제점은 목회자의 인식보다는 재정부족에서 오는 어려움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목회자의 복지의식 전환에 대해서는 전문목회자 양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목회자들은 사회복지사업이 타 교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하였는데, 이는 대형교회를 위주로 연구하고 있는바, 한국 교회의 목회 전반에 걸쳐 대형교회가 그 밖의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목회적인 실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것으로 신·구약에 나타난 사회복지사상과 교회 사회복지 사업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 교회의 사회복지사업의 개선방안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나아가 200년의 선교역사를 맞는 한국 기독교의 시대적 역할을 고찰함으로써 21세기의 한국 교회의 사회복지사업을 전망해 보았다.

한국 교회가 사회복지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선행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교회가 지역주민들의 바람직한 삶을 위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활동으로서의 지역사회봉사 사업을 통하여, 교회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이상적인 삶을 창출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교회의 사회복지사업은 교파를 초월한 연합적인 참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교회들이 기금을 공동 투자하는 등 초 교파적인 봉사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교회의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의 양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곧, 교회의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또는 이들을 지도할 전문요원들을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교육·훈련시키는 전문교육기관의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넷째, 교회의 지역사회복지사업 참여에 대한 좀더 개방적이며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곧, 비기독교 단체에서 시행하는 복지 정책에도 직접 참여하여, 그들의 장점을 도입할 필요도 있으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방법론도 그들에게 소개함으로써 본래의 목적을 이루어 가야 한다.

다섯째, 교회가 인간의 존엄성에 가치를 두고 인류에 대한 봉사자로서, 봉사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적인 대책과 실제적인 봉사활동이 건전한 균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교회가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봉사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사회복지에 대한 교회의 인식을 보다 강화하여, 교회의 사회복지사업 활동을 수반적이고 잔여적인 차원에서 목적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둘째, 교회의 사회복지사업이 단순한 봉사활동의 차원을 넘어 기존의 사회인식을 체계화하고 수정·비판하는 지적 작업으로까지 발전되어야 할 것이며, 가능하면 인과 관계의 인식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일정한 결과를 조성하거나 원인과 결과를 겨냥하는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개입전략도 아울러 발전시켜야 한다.

셋째, 과도한 전문화나 비인간화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랑을 바탕으로 하여 보다 전문적으로 계획·관리하는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교회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과제는 우선 사회조사를 통하여 지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욕구가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 활용 가능한 자체 또는 외부의 인적, 재정, 조직, 자원이 정확히 파악되어야 한다. 그리고 실행 가능한 일부부터 시작하여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면서, 그 경험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사업의 계획과 추진에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며, 예상되는 소요경비의 예측이 용의 주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막대한 자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며, 이것을 바탕으로 교회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나아가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교회가 직접 사회사업 전공자를 채용하거나, 신자 중에서 공부 또는 훈련받은 자를 자원봉사자로 활용한다면 보다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는 21세기를 맞이하면서,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사업 참여는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 가고 있다. 과거 한국의 교회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교회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 대사회적 선교의 영향력이 감소했음을 인식하면서, 21세기의 한국교회는 교회는 교회의 본질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바른 이해에 기초하여 영혼구원과 사회구원의 이원론적 사명을 가지고 21세기 복지국가 건설에 동참하면서 사회적 영향력을 넓혀나가기 위한 사회복지활동이 절대적으로 요청되고 있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교회의 사회복지사업은 시대적인 요청이나 흐름 때문에 시행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인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는 사실이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제 성경에 나타난 복지사상과 함께 다양한 사회복지실천 기법을 활용하여 믿음과 행함이 있는 교회로서의 적극적인 복지를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 국내문헌

- 곽효문 편, 기독교사회복지론, 서울 : 제일법규, 2000.
- 김기원, 기독교사회복지론, 서울 : 대학출판사, 1998.
- 김만두, 한혜경, 현대사회복지개론, 서울 : 홍익제, 1997.
- 김병서, 한국사회와 기독교, 서울 : 한울 아카데미, 1995.
- 김양선, 한국기독교연구, 서울 : 기독교문사, 1971.
- 김장대, 기독교사회복지학, 서울 : 도서출판 진흥, 1998.
- 맹용일, 복지목회론, 서울 :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7.
- 박용일, 출애굽기 강해, 서울 크리스찬서적, 1987.
- 박종삼, 사회중심의 사회복지건설운영과 지역사회, 서울 : 사회사업선교협의회, 1988.
- 성규탁 외, 한국교회의 사회복지 참여에 관한 연구, 서울 : 연세대학교 신학대학부설 한국 기독교 문화연구소, 1991.
- 신광섭, 한국 기독교의 복지사적 고찰, 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 양창삼, 기독교와 사회봉사, 서울 : 한양대학교출판부, 1992.
- 유의웅, 현대교회와 사회봉사, 서울 : 대한예수교장로회출판국, 1991.
- 이계탁, 사회복지학 강의, 서울 : 나남출판, 1997.
- 이기백, 한국사신론, 서울 : 일조각, 1982.
- 이덕주, 사회복지학개론,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 최무열, 한국교회와 사회복지, 서울 : 나눔의 집, 1999.
- 한병기, 개혁주의강론, 서울 : 규장문화사, 1986.

### ※ 논 문

- 강혜영, 한국교회의 사회봉사사업 개발에 관한 기초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교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곽효선, 한국기독교 목회자의 복지의식과 사회복지 서비스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김구태, 21세기 한국교회의 사회복지학적 역할에 대한 전망, 총신대학교 신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김기원, 교회의 사회복지 실태에 대한 인식도는, 목회와 신학, 서울 : 도서출판 두란노, 1997년 3월호.
- 김덕준, 기독교와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 통권 75호, 한국복지협의회, 1984.
- 김만두, 현대교회와 사회복지서비스, 한국교회의 미래와 평신도,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91.
- 김상석, 한국 사회복지체계에서 기독교의 역할과 교회의 복지활동 실태, 계명대학교 정책개발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1992.
- 민진홍, 기독교 사회복지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박근원, 목사와 지역사회 활동, 기독교사상, 1992년 8월호.
- 박문석, 성결교단 목회자들의 사회복지 의식에 관한 연구, 성결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박정신, 한국 개신교 성장에 대한 역사적 설명시도, 기독교사상, 1989년 4월호
- 박종삼, 교회 사회봉사에 대한 사회복지학적 접근, 한국교회 사회봉사 총람, 서울 :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4.
- 방희덕, 목회자의 사회복지 개발에 대한 태도, 신학논단, 김찬국교회합기념논문집, 제17권, 1987.
- 서정호, 한국교회자원의 사회복지활용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신복윤, 복음주의, 근본주의, 개혁주의 비교, 목회와 신학, 서울 : 두란노서원, 1990년 8월호.
- 신정환, 목회자들의 사회복지의식과 개교회사회복지사업실태, 대구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1989.
- 이성일, 한국 목회자의 사회복지 의식과 교회의 사회복지 활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임병환, 한국 개신교 목회자의 사회복지 의식에 관한 소고,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장종녀, 한국 기독교회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정관영, 교회사회사업에 대한 목회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정성채, 기독교 목회자의 사회봉사참여에 관한 의식과 태도 조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한위근, 한국개신교 사회복지사업의 실태와 활성화방안, 대구대학교 사회개발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외국문헌.

- A. Gelin., The Poor of Yohweh, trans. by Mother Kathryn, Sullivan Collegeville, Minnesota : The Liturgical Press, 1964.
- E. Thoeltsch., The Social Teaching of the Christian Church, Vol. Z, New York : The Macmillan co, 1931.
- H. M. Miller, Compassion and Community, New York : Association Press, 1961, p. 28.
- J. Higgins. State and Welfare, Basil Blakwell Publisher Ltd, London, 1981.
- Public Reation Deparment, Bethel College, Toward Social Work : A Helping Progression, St. Paul, Minn, : Bethel College, 1964.
- R. Bessel., Introduction to Social Work, Lodon : B.J. Bats Ford Ltd, 1970.
- W. A. Friedlander., Introdutiion to social welfare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 Hall, 1974.
- W. Collin, The Church, Philadelphia : The Westminster Press, 1963.

# Abstract

## A study on improvements of welfare businesses in churches.

Yoo Soon, Le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As the christian covers more than a quarter of Korean population, the role of churches in social welfare field is constantly increasing. As a result, many christians work in social welfare fields such as non-profit organizations, welfare centers, churches following the teaching of christian principl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evaluate the role of christians in christian welfare principles.

Below conditions are necessary to achieve the successful welfare business of the churches.

First, through various local welfare businesses, the churches should contribute to the local residents' ideal life.

Second, the welfare businesses of the churches should be united.

Third, professional education organization should be established.

Fourth, more flexible and open minded approach to the non-christian organizations is necessary.

Fifth, systematic plan and practical volunteerism should be well balanced.

Ideal proposal of churches' role for the welfare business are as below,

First, every church has to have the spirit of services to all the people.

Second, the welfare businesses of churches should progress. Churches should criticize conventional problems and propose alternative plans.

Third, on the basis of love, welfare businesses of churches should be managed more systematically.

Fourth, churches should be aware of current situations of both internal and

external resources such as human, capital resources for local welfare businesses.

Fifth, experts' participation is essential in the progress of planning and promoting welfare businesses.

As more churches start to participate in the welfare business in various forms, their role in local welfare business is increasing. By the above suggestions, this study expects christians to play more important and active role in welfare field, spreading the 'light' of Jesus christ and practising 'love' of Jesus christ.

## 감사의 글

먼저 이 논문 나오기 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세심하게 지도해 주신 황진수 교수님과 정주택교수님  
권해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논문 쓰는 기간동안 격려해 주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동생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논문이 나오기까지 함께 했던 가족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편으로 사랑스러웠던 이희관 형제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주위의 많은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들 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멀리 떠나 있는 아들이 최선을 다해 훌륭한 학위를 취득하고 돌아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내 모습을 지켜나가게 낳아주신 사랑스런 부모님, 남편, 아들,  
동생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쉬지 않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